



##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 석사학위논문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박 효 진

#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지도교수 김 성 재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전공

박 효 진

박효진의 간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여자청소년의 음주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많아지면서 점차 음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하거나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은 문제음주자가 될 수 있는 고 위험군에 속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불건강한 음주습관은 성인기의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여성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태아알코올증후군과 같은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음주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대상자들은 기본적인 음주 예방교육조차 받을 기회가 없다. 또한 이들의 음주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청소년의 일반적인 음주 예방교육과는 그 내용과 접근방식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에게 가출과 비행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음주 문제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음주관련 지식, 음주 결과기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금주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무작위배정 대조군 시차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적용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은 여성 음주 문제와 관련된 정보제공, 음주와 관련된 스트레스 및 감정 다루기, 역할극을 통한 자발적 변화동기 형성과 지지 및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용으로 한 1회 2시간의 총 3회기 집단 활동이다. 연구대상은 일 보호치료시설에 위탁 거주중인 학교 밖 여자청소년 46명의 대상자를 전산화된 무작위할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하고, 확산효과 방지를 위해 대조군의 자료를 수집한 후에 실험군에게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6월 13일부터 2014년 8월 11일까지였으며, 최종적으로 실험군 23명과 대조군 2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hi-square test, t-test, Fisher's exact test를 통해 사전 동질성 검정을 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가설 검정은 t-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고,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Kuder-Richardson formula 20, Cronbach's  $\alpha$  계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5% ( $p < .05$ )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청소년 음주관련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 = -9.93$ ,  $p < .001$ ).
- 2)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임신 중 음주에 관한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 = -6.06$ ,  $p < .001$ ).
- 3)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음주 결과기대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 = 2.13$ ,  $p = .040$ ).
- 4)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Z = -0.79$ ,  $p = .426$ ).
- 5)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금주의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Z = -0.86$ ,  $p = .387$ ).

이상의 결과에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고 음주에 대한 긍정적 결과기대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금주의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없었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 이외에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들의 음주행위의 편차가 크고, 음주동기가 다양한 것을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을 고안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음주 고 위험군인 학교 밖 여자청소년에게 이들의 특별한 음주상황을 고려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는 것, 그리고 학교 외 지역사회에서 시행한 적극적인 예방적 중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학교 밖 여자청소년들을 위한 음주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공한 중재에 더하여 자조집단을 구성하거나 맞춤형의 개별적 중재를 제공하는 등의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학교 밖 여자청소년,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음주관련 지식, 음주 결과기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금주의도

**학 번:** 2011-20461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4
3. 용어의 정의 .....	4
 II. 문헌고찰 .....	7
1.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 실태 .....	7
2. 여자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문제 .....	10
3. 여자청소년의 음주관련 요인 .....	16
4.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특성 .....	21
 III. 이론적 기틀 및 가설 .....	26
1. 이론적 기틀 .....	26
2. 연구 가설 .....	30
 IV. 연구방법 .....	31
1. 연구 설계 .....	31
2. 연구 대상 .....	32
3. 측정도구 .....	33
4.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	36
5. 자료수집 절차 .....	43
6. 자료분석 방법 .....	45

V. 연구결과 .....	46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	46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	48
3. 연구가설 검정 .....	50
VI. 논의 .....	58
1.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	58
2.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적용 .....	62
3. 연구의 제한점 .....	70
4. 연구의 의의 .....	71
VII. 결론 및 제언 .....	72
1. 결론 .....	72
2. 제언 .....	73
참고문헌 .....	74
부록 .....	90
Abstract .....	112



## List of Tables

Table 1. The Research Design .....	31
Table 2. Sessions & Contents of the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	42
Table 3.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47
Table 4.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	49
Table 5.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the Alcohol-related Knowledge between Groups ....	51
Table 6.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the Alcohol Expectancy between Groups .....	53
Table 7.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th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between Groups .....	55
Table 8.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the Alcohol Abstinence Intention between Groups .....	57

## List of Figures

Figure 1.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of health behaviors .....	27
Figure 2.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	28
Figure 3.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	29

## 부록 목차

부록 1. 연구 대상자 보호 심의결과 통보서 .....	90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	91
부록 3.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회기 별 구성 내용 .....	94
부록 4. 활동지 .....	100
부록 4-1. <활동지 1> 술에 관한 마인드맵 .....	100
부록 4-2. <활동지 2> Fatal vision 경험 나누기 .....	101
부록 4-3. <활동지 3> 술 광고와 음주 .....	102
부록 4-4. <활동지 4> 감정 다루기 .....	103
부록 4-5. <활동지 5> 음주로 인한 이익과 손해 .....	104
부록 4-6. <활동지 6> 바라는 내 모습과 현재 내 모습 .....	105
부록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 .....	106
부록 6. 청소년의 음주관련 지식 설문지 .....	107
부록 7.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지식 설문지 .....	108
부록 8. 음주 결과기대 설문지 .....	109
부록 9.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설문지 .....	110
부록 10. 금주의도 설문지 .....	11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여자청소년의 음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제9차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 고등학교 음주 여학생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을 가리키는 위험 음주율이 49.9%, 최근 12개월 동안 음주 후 문제행동을 두 가지 이상 경험한 문제 음주율이 40.8%에 이르고, 여학생의 첫 음주 연령이 13세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2013). 음주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위험 음주율과 문제 음주율이 증가함은 여자청소년들이 음주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음주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학교에 속해있는 학교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1번이라도 음주를 해본 경험률)은 16.9%인 것에 반해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가출 또는 비행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은 83.1%로 훨씬 높게 조사되어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 습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여자청소년의 음주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추후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알코올은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기 뇌에 독성물질로 작용하여 손상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한다(Tapert, Caldwell, & Burke, 2004). 또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지고, 충동성을 통제하기 어려워 위험 성행위가 증가하며, 폭력, 성추행, 성폭력, 데이트 폭력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박하나와 장수미,

2012; Matthews & Lorah, 2005), 원치 않는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전염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이한주와 강희선, 2011; 이혜경, 2006).

음주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의 남용이 증가하고, 알코올의 습관성은 성인 여성의 알코올 남용 및 의존으로 진행된다(Hotton & Haans, 2004). 또한 낮은 음주 연령과 임신 전 잦은 음주 경험은 임신 중 음주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도은영과 홍연란, 2011). 청소년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도 미래에 건강한 모성이 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습관화된 알코올을 쉽게 끊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여자청소년에게 여성 음주자로서 겪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음주 문제에 대한 지식을 알리고 잠재적인 음주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성인 여성 또는 임신 중인 여성을 위한 음주관련 교육도 중요하지만 알코올의 습관성이라는 특성에 주목한다면 첫 음주가 시작되고, 가임기가 시작되는 청소년기부터 알코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애초에 음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가능한 한 음주시작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도은영과 홍연란, 2011). 그리고 이미 음주가 시작된 여자청소년에게는 알코올의 독성과 습관성으로 인해 발생할 음주 문제를 줄이는 중재가 시급하다.

음주 예방을 위한 중재는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주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래 압력과 감정 다루기, 스트레스 관리, 문제해결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의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최은진, 2005).

그러나 학교 밖 여자청소년은 이미 음주를 시작했거나 음주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잠재적 고 위험군임에도 학교에 소속되지 못하고, 특히 가출과 비행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가정의 돌봄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김영미, 2006; 김지경과 김균희, 2013). 이는 청소년 음주행위 및 음주의도가 음주관련 지식이나 음주에 대한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음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박재은, 정슬기와 서진환, 2012; 서경현과 양승애, 2010).

또래를 중시하는 청소년기 특징에 따라 또래집단은 음주 시작 연령과 음주 습관, 음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또래 사이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또래동조 성향은 음주 상황에서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김지경과 김균희, 2013; 류나미와 윤혜미, 2008). 그러므로 가출과 비행으로 가족과 학교로부터 이탈 되어 또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밖 여자청소년은 학교 밖에서 만나는 또래집단을 통해 음주행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 소속되지 못하고 실제적·잠재적인 음주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위한 중재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위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음주에 대한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금주에 대한 자율적 동기가 유발되도록 대상자의 실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가출 및 비행청소년의 다변하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교육적,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출과 비행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 음주로 인한 문제를 특화 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그 중재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 관련 지식, 음주 결과기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및 금주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관련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2)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 결과기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3)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4)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금주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학교 밖 여자청소년

학교 밖 여자청소년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와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

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만 19세 미만의 여자청소년을 말한다(교육법전 편찬회, 2013; 법무부, 2013; 홍봉선과 남미애, 2013). 본 연구에서는 보호치료시설 M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말한다.

## **2)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란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거나 음주 빈도 또는 음주량의 증가를 지연시켜 음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McBride, Farrington, Midford, Meuleners, & Phillips,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음주 경험이 있거나 음주의 잠재적 고 위험군인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고 음주 결과 기대감을 전환시키며 음주상황에서 음주를 거절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금주의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여성 음주 문제에 특화된 집단강의와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구성된 3회기의 소집단 활동을 말한다.

## **3) 음주관련 지식**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하고(국립국어원, 2008), 음주관련 지식은 알코올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 가임 여성의 음주 결과, 음주문제 예방과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이 알아야 할 지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은(2006)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관련 지식 측정 도구와 김일옥, 정구철과 양은경(2012)이 개발한 임신 중 음주 지식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4) 음주 결과기대

음주 결과기대란 음주의 효과나 결과에 대해 음주자가 갖는 믿음을 말한다(윤혜미, 김용석과 장승옥, 1999). 본 연구에서는 Christiansen, Smith, Roehling과 Goldman(1989)이 개발한 알코올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Adolescent; AEQ-A)을 윤혜미 등(1999)이 번안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에게 맞는 문항을 선별하여 수정한 청소년 음주기대척도(AEQ-A)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5)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Bandura, 1977)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음주를 거절 또는 억제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 신념이나 자신감을 말한다(김태경과 민혜숙, 2013). 본 연구에서는 Aas, Klepp, Laberg와 Aaro(1995)가 개발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자기효능 척도를 기초로 조희(2000)가 번안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6) 금주의도

의도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이루려고 꾀하는 것을 말하며(국립국어원, 2008), 실제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행하는 것(Ajzen, 1991)으로 금주의도는 앞으로 금주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는지를 말한다(김수옥, 2008). 본 연구에서는 김수옥(2008)이 사용한 금주의도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II. 문헌고찰

### 1.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 실태

####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하며, 기존에 중퇴 청소년,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교거부 청소년 등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칭하던 용어를 학교에서 벗어난 것일 뿐 배움을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송광성, 구정화, 이영아와 김소희, 1992; 홍봉선과 남미애, 2013).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두는 동기와 자발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능동형’은 학생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로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하기 위하여 중퇴한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도피형’은 학교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뚜렷한 대안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로써 자신이 부딪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퇴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회피의 형태로 학교를 빠져나가 흥미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학교가 지겨워 가출을 하고 이에 무단결석을 하면서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제적을 당하니 차라리 자퇴를 하여 다시 입학할 기회를 가지려고 중퇴하는 경우이다. 셋째 ‘불가피형’은 학교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퇴한 경우로 심각한 비행으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능동적인 이유로 등교를 중단한 경우는 자신의 진로 개척

에 적극적이지만 도피형이나 불가피형처럼 소극적인 이유로 중퇴한 청소년은 계획이나 장래에 대한 의지가 불투명하여 망황이나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홍봉선과 남미애, 2013).

전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2013년 총 재학생 6,481,492명 대비 학교밖 청소년은 65,487명으로 1.0%를 나타냈고, 이중 학교밖 여자청소년은 29,380명으로 0.9%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학업을 중단하게 된 사유로 고등학교 자퇴인 경우에는 학업 관련, 대인관계, 학교 규칙 등의 부적응이 가장 높고, 퇴학을 당하는 경우로는 학교 폭력 또는 학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이었다(서울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2013;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4).

학교밖 청소년의 발생 요인으로 유흥과 향락 문화의 풍토, 각종 폭력 및 비행에 노출, 학교 서열화, 부정적인 또래집단과의 교류, 지역사회 내 상담기관, 복지관 등의 효과적인 지원 집단의 부족 등이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우석 등, 2007). 또한 가정적 요인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재혼 등의 구조적 결손,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가족 구성원의 약물 문제나 폭력, 학대와 불화 등이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범구와 조아미, 2013; 서우석 등, 2007). 학업중단 학생은 충동조절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 대처가 미숙하며, 낮은 자아존중감, 권위에 대한 반사회적 성격, 높은 공격성,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통제감의 부재, 부정적 가치관, 낮은 지적 수준, 높은 불안과 우울 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을 보였다(서우석 등, 2007; 유진이, 2009; 이자영 등, 2010).

## 2)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 실태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 실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는 없다. 그러나 유순화와 정규석(2003) 연구에서 가출하여 쉼터에 머물던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 경험률이 66.7%로써 쉼터 남자청소년의 46.2%보다 높은 음주 경험률을 보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조사에서는 학교에 속해있는 학교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은 16.9%, 가출, 비행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은 83.1%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평균 주량은 소주 1병 이상인 경우가 54.3%로 학교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 46.8%를 웃돌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등, 2013). 중·고등학교 여학생에서 조사된 49.9%의 위험 음주율, 40.8%의 문제 음주율은 남학생의 위험 음주율 44.9%, 문제 음주율 40.3%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교육과학기술부 등, 2013).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 부적응하여 가출과 비행 상황에 처해 있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들이 음주로 인한 문제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비행 정도에 상관없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모두 높은 음주율을 보였고, 특히 여자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관련요인으로써 비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김진석, 2013). 또한 음주충동에 있어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았고(서경현과 양승애, 2010), 여자청소년의 문제음주는 남자청소년보다도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며(정슬기, 2011), 여자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음주 및 약물남용, 자살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Clark, Pollock, Bukstein, Mezzich, Bromberger & Donovan, 1997). 특히 여자 비행청소년의 우울성향은 남자 비행청소년보다 높고,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긍정적인 음주기대는

여자 비행청소년의 음주빈도를 높인다(김현실, 2002).

이상과 같이 가출 상황에 있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은 문제음주에 노출되어 있는 고 위험군이자 성인 문제음주로 이행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으로 가정의 양육과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비행과 음주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음주에 대한 노출이 많은 만큼 음주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으므로 음주 문제에 대한 예방적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서 음주 예방교육의 경험률이 39.3%에 불과하고,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해 학교 청소년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보다 특화된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2. 여자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문제

음주는 청소년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 건강행위이다. 때론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또는 생활 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대처 전략 중 하나로써 술을 마시고(Eftekhari, Turner & Larimer, 2004), 또래들과의 동질감을 느끼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음주행위가 강화되기도 한다(Hingson, Heeren & Winter, 2006). 하지만 알코올은 습관성이 있어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술을 마시지만 이들 중 일부는 성인기로 진행되면서 음주량이 증가하고, 습관화되어 남용 또는 의존의 단계가 되기도 한다. 그 외에 여자청소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신체적 문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의 수분량이 적고, 지방 분포가 많으며, 알코올 대사능력이 낮아 남성보다 더 적은 양의 알코올에서도 쉽게 취기를 느끼고, 숙취는 오랫동안 진행되며, 더 짧은 시간에 알코올 독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받게 된다. 알코올 의존 여성에서 뇌 출혈, 심혈관계 질환, 식도, 위, 간, 췌장 등의 장기 손상, 유방암 및 소화기계 암, 골다공증, 영양결핍, 빈혈 등이 쉽게 나타나고, 남성보다도 알코올성 치매 및 알코올 의존이 발생할 확률이 더 많다(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NIAAA], 2004).

에스트로겐이 면역 반응을 자극하고 테스토스테론은 면역 억제 역할을 하는데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에스트로겐을 감소시킴으로써 면역 반응을 억제하게 된다(Angove & Fothergill, 2003; NIAAA, 2004). 또한 젊은 여성의 알코올 의존자일수록 성병, 약물 에 의한 돌연사 혹은 상해, 자살 위험이 높다(Gordon, 2002).

청소년기는 뇌의 구조적, 기능적 발달과 성숙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로 독성물질인 알코올의 지속적인 노출은 이러한 뇌의 발달을 방해한다(White & Swartzwelder, 2005). 지속적인 음주는 신경 시냅스 가소성 및 신경세포의 기능을 변화시켜 화학적,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뇌의 조절중추인 전전두엽의 기능을 방해하여 음주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알면서도 적절한 행동조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Clark, Thatcher & Tapert, 2008). 행동, 감정, 인지기능을 조절하는 전전두엽과 변연계는 청소년기에 활발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 알코올 신경독성으로 인해 뇌가 손상되면 행동 및 정서장애, 학습 및 기억력 감소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 중독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Chambers, Taylor & Potenza,

2003). 또한 뇌위축은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더욱 심하다(Gordon, 2002).

사춘기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알코올로 인한 문제에 더욱 취약한 시기이다. 2주간 중등도로 음주한 12~18세 여자청소년의 에스트로겐 농도가 감소하여 사춘기 지연이 나타나고, 잦은 음주는 여성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Eggert, Theobald & Engfeldt, 2004; Witt, 2007).

## 2) 정신적 문제

여성은 남성과의 생리적·심리적 차이로 인해 적은 음주량과 횟수에도 문제 음주와 중독으로 진행되는 속도는 더 빠르다(Gordon, 2002). 청소년기부터 음주가 계속되는 경우 성인기 알코올 남용으로 진행되고, 더 강한 약물 남용의 위험이 있다(황성현, 2012; Chassin, Pitts & Prost, 2002). 특히 15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사람의 약 40%는 일생 동안 알코올 의존이 될 위험이 있다(Grant & Dawson, 1997). 학교에 소속되지 못하고 가출과 비행 상황에 처한 청소년은 음주행위에 있어 학교 청소년보다 빈도나 양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가스·본드·신나 등의 다른 중독 물질을 남용하는 비율이 높으며(김헌수와 김현실, 2002), 음주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일탈과 문제행동의 가능성 즉, 비행이나 역기능적인 행동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김순규와 김숙경, 2009; Zucker & Wong, 2005).

음주를 하는 여자청소년에서 우울, 불안, 과도한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여자청소년의 음주와 우울은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김미정과 고명숙, 2008; 김선아, 2010; 윤명숙과 조혜정, 2011; Clark et al., 1997; Hussong &

Chassin, 1994). 또한 여자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는 음주 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문제음주가 심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정슬기, 2011).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으로 합리적 사고와 판단력, 기억력,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흥분이나 불안 등의 정서문제를 보이게 된다(Brown, Tapert, Granholm & Delis, 2006; Chambers et al., 2003). 여자청소년은 보다 정서적이고 집단 안에 소속감과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쉽게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이지민, 2005).

### 3) 사회적 문제

청소년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가 크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음주의 결과로 인한 교통사고, 살인, 급성 알코올 중독, 추락, 화상, 익사, 자살로 매년 5천명의 청소년들이 사망하고 있고, 약 19만명의 청소년들이 알코올 관련 상해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다(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OSG, NIAAA & SAMHSA], 2007). 또한 음주 중에는 위험 성행위가 증가하여 원치 않은 임신, 성병 및 HIV의 감염에 노출되고(손애리와 박지은, 2006; Cooper & Orcutt, 1997), 폭력이나 성추행,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가 증가하며, 학업실패, 불법 약물남용, 가족 간의 갈등 등의 문제들이 있다(Hingson et al., 2006; Rothman, Bernstein & Strunin, 2010). 특히 잦은 음주나 폭음은 청소년의 폭력행위를 조장하고(조혜정, 2012; Swahn & Donovan, 2006), 음주청소년에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이 5배 이상 높다(Sourander et al., 2010).



술 마시는 여성이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일 것이라는 문화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음주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약물남용과 의존 문제를 가지는 여성의 90%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 성적인 학대를 당하며, 알코올 중독 여성의 40-70%가 성폭행, 근친상간, 강간의 희생자였다는 보고가 있다(Gordon, 2002). 교육과학기술부 등(2013)의 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의 음주 후 성관계 경험은 29.5%에 이르고, 여학생 성경험 관련요인으로 음주, 흡연, 약물사용, 우울 등이 제시되고 있다(유정옥, 김현희와 김정순, 2014).

#### 4) 임신 중 음주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음주 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성인기의 알코올 남용 및 의존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아진다(Gordon, 2002). 이에 여자청소년의 음주가 성인 여성의 음주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음주는 모성으로서의 역할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여성이 임신 중에 음주를 하면 알코올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직접 전달되어 태아의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안면기형, 성장장애, 그 밖에 여러 장기의 기형을 나타내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이라는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Niclasen, 2014). 소량의 알코올로도 직접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손상된 기능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평생 장애로 남아 학습, 행동, 정신장애를 겪거나 성인기에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약물남용, 범죄 행위 등과 관련된 사회부적응을 겪는 2차 장애가 발생한다(Warren, Hewitt & Thomas, 2011). 특히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증상들은 어릴 적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오히려 학령기 학습장

아와 성인기 사회부적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2차 장애가 진행되어 회복이 쉽지 않다(한정렬, 2010).

임신 중 음주하는 여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빠른 음주 시작 연령과 낮은 교육수준, 젊은 미혼 여성, 높은 음주기대감, 평상시 또는 임신 전 잦은 음주와 폭음과 같은 음주습관 등이 있고(김은숙과 정혜선, 2010; Ethen et al., 2009; May & Gossage, 2011; Zammit, Skouteris, Wertheim & Paxton, 2008),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과 불안이 높으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고, 청소년기에 품행장애를 경험하였거나 학대와 폭력에 노출(Massey et al., 2011; Skagerstrom, Chang & Nilsen, 2011)된 경우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 임신 중 음주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이 14.5%~24.9% 이르고, 임신 사실을 알고도 16.6%가 음주를 지속하였고, 45.2%는 임신인줄 모르고 음주를 했다는 보고를 하였다(도은영과 홍연란, 2011).

태아알코올증후군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장애에 비해 술을 마시지 않으면 100% 예방이 가능하다(한정렬, 2010). 따라서 가임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이 필요하다. 비단 임신 계획이 있는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음주가 시작되고, 가임시기에 해당하는 여자청소년에게도 임신, 출산 등 여성 신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음주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조기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더욱이 음주군에 속한 청소년은 성경험과 같은 위험행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유정옥 등, 2014), 이러한 문제의 고 위험군인 학교 밖 여자청소년에게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음주문제에 초점을 맞춘 예방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 3. 여자청소년의 음주관련 요인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된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에는 음주관련 지식, 음주에 대한 신념·태도·결과기대, 자기효능감, 충동성,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대처기술, 의사결정기술, 또래동조성향 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 는 가족력, 부모가 음주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부모의 음주 습관, 자녀에 대한 감독, 학대 등의 부모 요인과 친구의 음주 태도와 음주 여부, 또래의 음주동조 압력, 친구 사이의 인기도와 같은 친구·또래집단 요인이 있으며, 교사와 학교의 관심에 해당하는 학교 요인이 있다(김영미, 2006; 도은영과 홍연란, 2012; 박재은, 정슬기와 서진환, 2012; 이재경과 정슬기, 2010; 현안나, 2012; Chuang, Ennett, Bauman & Foshee, 2005; Hayes, Smart, Toumbouron & Sanson, 2004).

청소년의 비행과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과 어린 시절의 부정적 기질, 충동성, 낮은 자기통제력, 우울, 반사회적 성격, 부모-자녀 관계, 비행을 하는 또래관계, 외상경험, 낮은 삶의 만족도가 있었고, 부모와의 유대가 만족스러운 경우는 비행과 음주가 감소하였다. 재비행의 요인에서도 자존감과 자기통제력이 낮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자존감의 증가, 우울감이 높은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재비행이 증가하였고, 부모의 지지가 있는 경우는 재비행이 감소하였다(김현수와 김현실, 2002; 민원홍, 2014; 윤명숙과 이재경, 2014).

한편 학교와의 애착이 적을수록 여자청소년의 비행은 높아지고(Daigle, Cullen, & Wright, 2007), 여자청소년의 비행 양상으로는 음주, 흡연, 가출과 같은 지위비행이 가장 많으며 이어 성비행의 비

율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서봉언과 김경식, 2014; 이춘화와 윤옥경, 2003).

### 1) 개인적 요인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관련 지식 또는 음주에 대한 인식은 음주행위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상관관계가 있고(신수미와 손애리, 2008; 양수, 송경애와 조선진, 200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관련 지식이 적고, 음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문제성 음주가 증가하고, 음주에 대한 태도는 금주의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서경현, 2013).

음주 결과기대란 알코올 사용과 특정 사건 간의 예측 가능한 관계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Christiansen et al., 1989). 즉, 음주 전에 음주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믿는 것으로 음주 결과기대는 음주행위와 관련이 있다.

여자청소년의 음주행위를 나타내는 데에는 음주에 대한 태도와 음주 결과기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음주 기대는 여고생의 음주 빈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박재은 등, 2012). 한편 음주에 대한 태도와 기대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가족, 또래, 학교, 대중매체와 같은 주변 음주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되어 있다(김영미, 2006; 양수 등, 2003; 정명숙과 이동수, 2008).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 결과기대와 더불어 음주행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음주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음주량과 빈도를 조절하고 금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김성재, 1996; 조희, 2000). 청소년에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음주행위가 감

소하였는데(김승수, 2005; 조희, 2000), 또래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은 음주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음주 강도가 증가하였다(김석주, 2005). 음주거절 자기효능은 특히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시기의 음주는 집단 내 친구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Aas et al., 1995). 또한 음주태도와 교우관계, 자기효능감은 음주의도에 영향을 주어 음주행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이동수와 정명숙, 2007).

금주의도는 앞으로 금주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는지를 말하며(김수옥, 2008), 금주의도가 클수록 실제 금주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Ajzen, 1991). 청소년 음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구의 음주빈도, 친구의 음주량, 또래압력, 부모의 음주빈도, 부모-자녀 간 정서적 유대, 대중매체에서의 음주장면 시청빈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건강신념 등이 있으며, 또래 동조성향은 긍정적 음주기대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류나미와 윤혜미, 2008).

## 2) 환경적 요인

청소년 음주행위와 관련된 가족 요인에는 부모의 음주여부, 자녀의 음주에 대한 허용정도, 부모감독, 가족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등이 있다(김승수, 2006; 류나미, 2003; 조혜정과 윤명숙, 2010). 부모가 음주를 하거나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증가하며(김승수, 2006), 청소년기 동안 부모의 감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 때, 부모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감소하였다(김용석, 2004; 이정환, 2010).

청소년 음주행위에 있어 친구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친구는 청소년 발달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체계이며, 친구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거나 행동을 모방한다(조혜정, 2014). 친구가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음주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친구의 음주량과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친구의 압력이 강할수록 음주행위가 증가하였다(김승수, 2006; 김용석, 2004; 이재경, 2006; 현안나, 2012). 특히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또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보고가 있다(김미정과 고명숙, 2008).

청소년 음주행위의 환경적 요인으로써 학교 교칙,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취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이 있고, 학교와의 애착, 학교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들의 음주 시작 시기를 늦추거나 음주행위를 감소시켰다(Zimmerman & Schmeelk-Cone, 2003). 또한 학교에서 진행되는 음주교육을 받은 경우, 학교 처벌이 있는 경우, 음주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부정적일 경우 음주행위는 감소하였다(이은희, 유혜옥과 박상미, 2009).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음주관련 광고에 더 많이 노출되고, 대중매체로부터 음주에 대한 호감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이재경, 정슬기와 김지선, 2012; Jernigan, Ostroff, Ross, & O' Hara III, 2004). 이를 반영하듯 기존 남성 중심으로 제작되던 주류 광고가 여성에 대한 소비 전략으로 술의 저도화, 웰빙, 열정, 자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여성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부추긴다(도은영, 2009). 음주가 문제해결 혹은 대인관계 개선의 방법으로 그려지는 긍정적 기대감은 청소년들의 음주의도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나장원, 2008; 이재경 등, 2012; 조혜정, 2014).

청소년이 음주를 처음 시작하는 상황은 집안 행사나 가족의 어른으로부터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음주를 지속하는 요인으로 또래집단에 소속되기 위하여, 친구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음주를 지속한다는 결과가 있다(정현희, 2002; 현안나, 2012). 청소년의 음주, 흡연행위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은 미미하고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청소년기 전체에 걸쳐 강하게 나타나고(황성현, 2010), 음주를 하는 친구 수가 많고, 음주를 하는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 음주빈도는 증가하였다(이정환, 2010).

우리나라의 청소년 음주 예방교육은 주로 학교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이 되고 있다(최은진, 2005).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행되는 음주 예방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들에 대한 필터링이 어렵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에서 조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음주 예방교육의 경험률이 39.3%로 낮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중단으로 인해 부족하게 된 음주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음주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음주결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또래와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면, 또래와의 음주상황에서 행위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행위변화가 가능할 것이기에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필요하다. 다만 환경적 요인에서 가족요인은 청소년의 음주와 비행에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김현수와 김현실, 200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음주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을 목표로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중재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탁기간 동안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상 음주행위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금주의도 측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래 금주로의 행위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 4.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특성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란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거나 음주 빈도 또는 음주량의 증가를 지연시켜 음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McBride et al., 2004).

‘폐해(Harm)’란 중독치료 모델인 ‘폐해 감소 모델(Harm Reduction model)’에서 사용된 것으로 중독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말한다(Riley et al., 1999). 이러한 시도는 음주에도 적용이 되어 근본적인 치료인 금주, 단주하기를 주저하는 대상자에게 최소한 음주량과 횟수를 줄임으로써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감소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앞서 고찰한 내용을 통해 청소년 음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행위 자체는 현상적인 것일 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자 청소년이란 대상은 알코올에 취약한 집단이므로 조기에 현상만이라도 줄여나감으로써 더 큰 폐해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중재연구는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 활동으로 구성하여 시행되었다(박가람, 2009; 이정숙, 김수진과 권영란, 2009; 정문희, 전해정, 김미혜, 김영미와 이금순, 2006; 최순희와 박민정, 2008). 선행 연구에서는 남녀 초등학교 6



학년,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 여중생,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 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중재가 시행되었다. 중재 기간은 1회당 45분~1시간씩, 총 3회기~8회기까지 다양하였고, 3주~8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구성 내용으로는 음주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강의와 알코올로 인한 신체 변화에 대한 실험, 음주 가상체험,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훈련을 위한 역할극 등이 포함되었고, 정문희 등(2006)은 웹기반 음주예방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이정숙 등(2009)은 흡연과 음주예방 통합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공통된 효과로 음주관련 지식이 향상되었고, 음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에서 부정적인 태도로 전환되었으며,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음주행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음주는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이로 인한 음주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특히 여자청소년 음주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여성적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심성옥, 이진우와 손영곤, 2009). 무엇보다 학교 밖 여자청소년은 학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 예방교육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따라서 학교 청소년에게서 효과가 확인된 음주 예방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학교 밖 여자청소년이 가출, 비행과 관련하여 겪는 문제 특히 음주와 관련하여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포함한 내용을 정보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습관적인 행위를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행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하며,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다(Fisher & Fisher, 1992).

박경(2014)은 음주 여대생에게 Bandura의 자기효능 이론을 근거로 한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의 3가지 자기효능 자원을 활용하여 자기효능증진 절주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주1회 60분씩 총 8회기 시행한 결과 대상자들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문제음주 행위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언어적 설득 자원으로 음주 교육을 시행하였고, 대리경험 자원으로 알코올 중독 극복자 체험 나누기, 알코올 중독자의 입원치료 및 사회 복귀 재활과정의 어려움을 담은 동영상 시청, 음주상황 역할극을 시행하였고, 성취경험 자원으로 대상자가 절주 일지를 작성하여 목표 달성을 스스로 격려하였다. 실제 음주행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동기가 있는 상황에서 성취경험 자원으로 행위변화 추이를 직접 작성하고, 중독자의 체험을 제공하며 대리경험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었고, 지속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소년 중독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해 연구된 중재로 동기강화 프로그램이 있었다. 행위변화를 위해 대상자의 변화 동기를 강화하는 동기강화상담을 적용한 것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기강화 집단상담을 하거나 동기강화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였다. 대상은 인문계 또는 실업계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은 주1회에서 2회까지 총 6회기~8회기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인터넷 중독행동, 충동성, 권태감, 우울이 감소하고 통제성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김남조, 2009; 정명희, 2007; 이규미, 2008; 이지혜, 2013).

개인은 기존 행위를 유지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망설임과 변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양쪽 면을 충분히 탐색하고, 현재 나의 생활과 변화하고자 하는 내 모습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Miller와 Rollnick에 의해 소개된 동기강화상담의 정의는 대상자의 양가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하여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변화 동기를 강화시키는 목적을 가진 대상자 중심적이면서 방향성인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3가지 정신으로 협동정신, 유발성, 자율성이 있으며, 협동정신은 상담자가 대상자의 관점을 존중하고 파트너 정신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상담자가 대상자를 억지로 변화시키기보다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발성은 변화에 대한 동기는 대상자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 보고 ‘대상자의 느낌, 관점, 인생목표, 가치관’을 통해 대상자의 변화 동기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상담자가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권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자의 선택과 자율권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신성만, 권정옥과 손명자, 2006).

동기강화상담은 4가지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공감 표현하기는 상담자가 반영적 경청과 수용의 태도로 대상자를 대하고자 노력할 때 대상자의 변화가 촉진된다는 원리로 상담자는 대상자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대상자의 말을 존중하며 대상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에 반응하고자 애써야 한다. 둘째, 불일치감 만들기는 대상자가 자신의 현재 행동과 가치관 사이의 불일치감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반영적 경청을 통해 대상자가 자신의 현실 상황을 직면하면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셋째, 저항과 함께 구르기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대상자가 주저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여 대상자가 상담자에게 문제를 언급할 경우, 상담자가 대상자에게 되묻거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대상자의 저항에 직접 맞서지 않고 대상자의 저항과 함께 구르거나 흘러가도록 하는 상담

원리를 말한다. 넷째, 자기효능감 지지해주기는 변화에 대한 장애물이 있어도 대상자가 적응해가며 계속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다. 즉 사람의 변화능력에 대한 상담자의 신념은 자기에언 충족이 되어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신성만, 권정옥과 손명자, 2006).

동기강화상담의 원리는 상담과정 전체에 스며드는 방식이며 치료 전체 과정에서 상담 및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용된다(신성만, 권정옥과 손명자, 2006).

본 프로그램의 전반에 있어 동기강화상담의 원리를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동기 형성과 행위 변화를 위한 의도를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가출과 비행 상황에 놓여있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 예방프로그램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반면, 이미 음주에 노출되거나 음주를 하는 또래와의 접촉이 많은 잠재적 고 위험군으로 음주 문제에 대한 예방적 중재가 시급하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이 건강 행위를 위해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으로 음주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행위 변화에 대한 자율적인 동기를 유발하도록 도우며,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용의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함께한 여자청소년 그룹이 교육에 대한 공감을 공유하고 함께 금주를 실천하도록 하는 또래결속력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금주이지만 지속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프로그램은 여자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건강 행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사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건강한 여성, 건강한 모성으로 준비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III. 이론적 기틀 및 가설

#### 1.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정보-동기-행위기술(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IMB) 모델을 기본으로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통합하여 이론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먼저 정보-동기-행위기술 모델은 개인이 변화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고, 행위변화에 대해 동기화되어 있으며 행위를 위한 기술이 향상되었을 때, 행위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행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Fisher & Fisher, 1992). 개인이 건강증진 행동을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정보, 동기, 행동기술로 개념화한 이론으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자가관리 증진에 유용한 모형으로 평가 받고 있다(Fisher, Kohut, Schachner & Stenger, 2011).

정보(information)는 변화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전의 경험들을 말하고, 동기(motivation)는 개인적 동기(personal motivation)와 사회적 동기(social motivation)로 나뉜다. 개인적 동기는 행위변화에 대한 태도(attitude)와 신념(belief)을 말하고, 사회적 동기는 사회적 규범(social norm)에 대한 지각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의미한다(Starace, Massa, Amico & Fisher, 2006). 행위기술(behavior skills)은 행위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객관적인 행위변화 수행능력과 행위변화 가능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된 신념인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을 포함한다

(Fisher & Fisher, 1992).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즉, 자기효능감이 목표한 행위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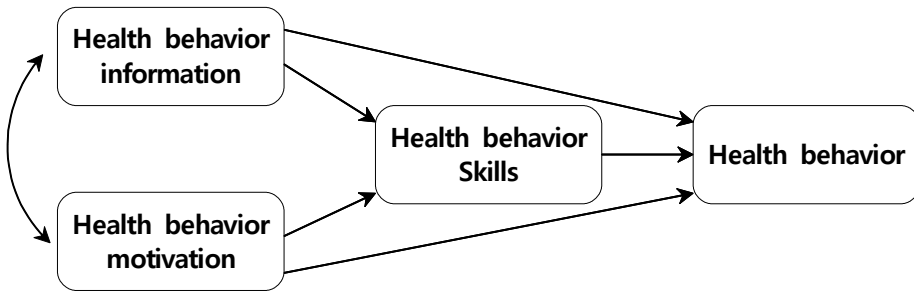


Figure 1.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of health behaviors (Fisher & Fisher, 1992)

계획된 행위의론(Ajzen & Fishbein, 1977)에 의하면 건강 행위의 변화를 위해서는 행위의도가 직접적인 결정요인이고, 강한 의도를 가진 개인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행위 변화를 위한 동기화가 더 잘 된다고 하였다. 행위의도(intention)는 그 행위에 대한 신념이 기초가 된 태도와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첫째, 태도(attitude)는 행위 수행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belief)에 기초를 둔 감정이나 느낌을 의미하고 둘째,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은 행위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타인의 신념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변화를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신념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신념에 기초한 행위관련 태도와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야기된 의도는 행위 예측에 있어 결정적 요인이다. 또한 행위에 대한 지각된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 즉 자기효능

감에 대한 지각을 말하며, 행위 수행과 관련된 내적, 외적 장애를 극복하고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Ajzen,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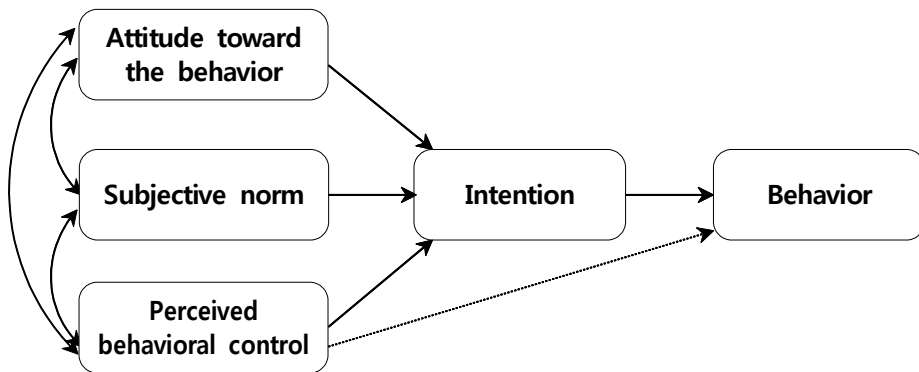


Figure 2.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정보-동기-행위기술 모델(IMB model)을 기반으로 계획된 행위이론(TPB)을 통합하여 금주라는 미래의 변화행위를 예측하는 변수로 금주의도를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음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음주행위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계획된 행위이론에 의하면 행위의도는 행위변화를 반영하고 예측한다고 하였다. 즉, 금주의도는 미래의 금주를 예측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센터 퇴소 후 미래의 행위변화인 금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금주의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금주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제시된 신념, 태도는 정보-동기-행위기술 모델에서의 동기를 형성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았고, 이는 음주결과 기대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며, 음주 문제와 관련된 지식 전달은 긍정적인 음주결과 기대를 부

정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또한 행위에 대한 지각된 통제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정보-동기-행위기술 모델에서는 행위기술로써 표현되고 있다. 이는 지식의 향상과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음주라는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여 금주라는 행위를 매개하는 금주의도를 높이는 데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음주관련 지식과 음주 결과기대는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의 행위기술에 영향을 주고, 금주라는 미래 행위변화를 예측하는 변수인 금주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사용된 개념들 간의 관계를 Figure 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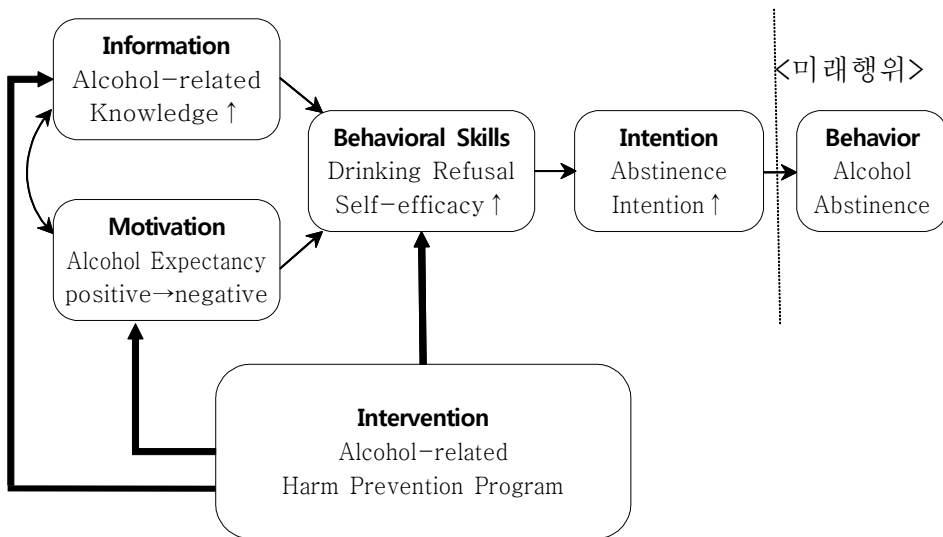


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에게 제공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상자를 실험군으로 하며, 특별한 처치를 받지 않은 대상자를 대조군으로 한다.

제 1가설.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음주관련 지식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제 2가설.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음주 결과기대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

제 3가설.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제 4가설.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금주의도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 IV.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 관련 지식, 음주 결과기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및 금주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무작위배정 대조군 시차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흐름을 도식화 한 것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Research Design

Group	Pre-test	Post-test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C	C1	C2			
E			E1	X	E2

E: Experimental group, C: Control group

C1, C2, E1, E2: Alcohol-related Knowledge scale,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Adolescent,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scale, Alcohol Abstinence Intention scale, General characteristics

X: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실험처치를 받는 실험군과 처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나누어 음주관련 지식, 음주 결과기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금주의도를 측정하여 실험처치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대상 시설에 함께 거주하고 있기에 실험처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대조군의 전·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으면서 서로에게 제공된 처치와 설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 보호치료시설 M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들 중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선정기준

- ① 입소대상 연령인 만10세 이상~만19세 미만의 여자청소년
- ② 자퇴 또는 제적으로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
- ③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
- ④ 보호자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

### 2) 제외기준

- ① 입소환경에 안정적 적응을 위해 위탁 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는 제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 크기는 Cohen(1988)의 표본산정 공식에 따라(이온옥 등, 2009) 유의수준( $\alpha$ ) 0.05, 검정력( $1-\beta$ ) 0.8, 효과크기(f) 0.5를 적용하여 그룹 당 17명의 최소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Tripodi, Bender, Litschge와 Vaughn(2010)의 청소년 음주감소를 위한 중재 메타분석에서 측정된 효과크기 0.62를 참고하여 중간효과 0.5로 결정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탈락률을 30% 정도로 예상하였고, 이에 실험군 23명, 대조군 23명으로 대상자를 계획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발은 센터 정원 53명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46명의 명단을 센터로부터 건네받아 연구자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전산화된 무작위할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얻어진 할당 순서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대조군 1명이 집안 사정으로 중도 퇴소하여 탈락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실험군 23명, 대조군 2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탈락률은 실험군 0%, 대조군 4.3%이다.

선발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가출과 비행의 상황으로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교 밖 여자청소년이면서 모두가 소년법 상 6호 보호처분을 받고 대상 기관에 거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보호처분이란 청소년 비행 또는 범죄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해 결정되는 처분을 말하며 이는 비행 청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으로 이는 소년법의 기능이 사법적 기능만이 아닌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 원조 등을 제공하는 복지적 기능도 포함한다(박상열, 2010).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한국소년법학회, 2006). 제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제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제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의 소

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대상자는 모두 6호 보호처분을 받아 연구 대상 기관에 6개월간 위탁되어 거주한다고 하였다.

### 3. 측정 도구

#### 1) 음주관련 지식

김지은(2001)의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측정도구를 토대로 신경은(2006)이 여자청소년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청소년 대상 음주관련 지식 측정도구’ 15문항으로 음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측정하였고, 김일옥 등(2012)이 개발한 ‘임신 중 음주 지식도구’의 10문항으로 임신 중 음주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O/X/모름’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정답일 경우 1점, 오답이거나 ‘모름’은 0점으로 채점하며, ‘청소년 대상 음주관련 지식 측정도구’의 점수범위는 0~15점이고, ‘임신 중 음주 지식도구’의 점수범위는 0~1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음주관련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경은(2006)의 연구에서 ‘청소년 대상 음주관련 지식 측정도구’의 신뢰도 KR-20(Kuder-Richardson formula 20) 값은 .77이고, 본 연구에서의 KR-20 값은 .76이다. 김일옥 등(2008)의 연구에서 ‘임신 중 음주 지식 도구’의 신뢰도는 KR-20 값이 .67이며, 본 연구에서의 KR-20 값은 .82이다.

## 2) 음주 결과기대

Christiansen 등(1989)이 개발한 90개 항목의 알코올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 - Adolescent)을 윤혜미 등(1999)이 번안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보이는 문항을 선별한 음주 기대척도를 사용하였다. 사교성, 공격성, 성적 기능강화, 긴장 감소의 4가지 하위영역에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아니오’의 이분척도로써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범위는 0~17점까지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음주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윤혜미 등(1999)의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 신뢰도는 각 하위 요인별로 KR-20 값이 사교성 향상은 .79, 공격성 .71, 성적 기능 강화 .74, 긴장감소 .79이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KR-20 값은 사교성 향상 .89, 공격성 .68, 성적 기능 강화 .72, 긴장감소 .87이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7이다.

## 3)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Aas, Klepp, Laberg와 Aaro(1995)가 노르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7개 항목의 청소년 음주에 대한 자기효능 척도를 조희(2000)가 번안하여 사용한 총 7문항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도구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부터 ‘매우 그렇다’ (5)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 범위는 7~35점으로 1,2,3,4,6,7번의 부정문항은 역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희(1999)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9이다.

#### 4) 금주의도

김수옥(2008)이 여자 중학생에게 사용한 금주의도 측정도구에 임신 시 금주의도를 묻는 질문 ‘나는 임신을 계획할 때 술을 끊을 것이다.’을 추가하여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범위는 4점~2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금주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수옥(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2이다.

### 4.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 1)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준비과정

본 연구자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상 기관에서 학습 봉사를 하면서 이들 여자청소년들이 여러 신체적·심리사회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데 반해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고, 결과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안 된 상태로 불건강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고 대상자들의 건강에 관한 자기 관리 능력 향상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청소년기 건강관리는 주로 학교에서 정기적인 검진과 보건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대표적인 불건강 행위로서 대상자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음주를 하고,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음을 듣고 문헌을 고찰한 결과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여자청소년

년이 음주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음주 결과기대를 전환시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및 금주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행위변화를 일으킬 부분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은 윤혜미(2008)의 ‘학교중심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과 장승옥(2009)의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또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가출, 비행 상황에서 여자청소년이 음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사례들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1회기 2시간으로 축약하여 여중생 1명, 여고생 2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시행하였다. 예비 연구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설문지 문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였다.

## 2)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간 학습 봉사를 하였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 및 낮병동에서 임상 정신간호 및 건강교육, 그룹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중독정신간호 수업을 이수하고 알코올 의존 치료공동체에서 실습 경험이 있는 정신전문간호사 및 2급 정신보건요원이다.

## 3)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본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은 이미 음주를 시작하였거나 음주 경험이 없어도 자주 음주 상황에 노출되었던 잠재적 고 위험 대상자에게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퇴소 후에도 계속 금주를 유지하거나 재음주 시기를 지연시키고, 음주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애초에 음주를 시작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음주로 인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음주 성향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며, 대상자가 음주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절 기술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여 신뢰감을 형성하고, 대상자들이 바라는 삶의 목표와 현재 자신의 행위와의 불일치를 함께 탐색하면서 대상자의 저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대해 지지하는 자세로 연구자는 변화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협력자로서 동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불건강 행위와 건강 행위와의 차이를 인식하여 불일치를 발견하고, 행위의 손익을 평가하여 행위변화에 대한 자율적 동기를 지지하고, 선택의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음을 설명하였다.

지식 전달의 측면에서 알코올 성분과 특성, 음주 규제를 하는 이유와 청소년 음주 실태,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 청소년기 발달 특성, 청소년기 음주와 관련된 문제행동과 음주동기, 여성의 음주 문제와 잠재적 위험인 태아알코올증후군, 알코올에 대한 잘못된 상식 등의 내용을 PPT,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음주 성향에 대한 자기인식과 대처기술 향상을 위해 음주와 관련된 감정 및 스트레스를 찾고 인지 행동적 기술 사용하기, 술이 생각날 때 대신할 수 있는 활동 찾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이완훈련, 음주거절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및 역할극을 시행하였다.

자발적 동기 유발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음주를 하면서 겪은 문제와 음주하는 나의 모습 중 변화하고 싶은 모습, 내가 바라는 꿈과 현재의 나의 모습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변화하고 싶은 부분 결심 세우기, 변화하지 않았을 때 이로운 점과 손해 보는 점 찾기, 변화를 방해하는 것 찾기, 행위 변화와 관련하여 성취했던 경험 등의

내용을 강의 중에 탐색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씩 총 3회기 과정으로 집단강의와 소집단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회기 구성은 3회기로 음주관련 지식,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나타낸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박가람, 2009).

3회기의 과정을 ‘나무가 성장하는 단계’에 비유하여 1회기 씨앗단계 → 2회기 새싹단계 → 3회기 희망나무 단계로 이름을 정하였다. 각 회기 전반부는 집단강의를 통한 정보제공, 후반부는 6~7명씩 3개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소집단 활동을 하였다.

1회기 씨앗단계의 목표는 자신의 음주 성향 및 숨은 문제를 인식하고 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청소년 음주 실태와 음주 문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다. 도입에서는 음주폐해 예방 프로그램의 목적과 전체 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였고, 진행자와 보조진행자, 집단구성원들과 서로 소개하며 별칭을 짓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서로 나누고, 3회기 동안 서로 돕기 위해 지킬 규칙들을 대상자들이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집단 강의의 주제는 ‘여자청소년과 술’로써 알코올 정의와 성분, 음주 규제를 하는 이유와 청소년 음주 실태,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 청소년기 발달 특성, 인체 내 알코올 대사와 중독의 보상기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개별적인 활동으로 술에 대한 느낌과 경험을 다양한 색과 모양의 마이드맵으로 표현하여 술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금주의도를 확인하였고, 10년 후 나의 꿈과 현재 나의 모습을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제기를 위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청소년의 음주 문화를 조명한 동영상

상을 시청하였고, 생리적 차이, 청소년의 뇌 발달, 중독 기전 등을 설명할 때 EBS 다큐프라임 동영상을 이용하였다. 흥미 유발을 위해 강의 중에 fatal vision을 사용한 가상 음주체험을 하였고, 인체모형을 이용하여 알코올 대사과정을 설명하였다. 마무리하면서 여자청소년 음주가 더 위험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음주 상황에서 자기 결정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갖추기 위한 것이며, 자율적으로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소집단별로 회기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소감을 나눴다.

2회기 새싹단계의 목표는 자신의 음주 동기를 확인하고, 음주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및 스트레스를 탐색하여 음주가 아닌 대안적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술과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집단 강의를 진행하여 청소년기 음주와 관련된 문제행동과 음주동기, 여성의 음주 문제(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적 문제)와 잠재적 위험인 태아알코올증후군, 음주에 미치는 영향(감정/스트레스, 대중매체, 또래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음주폐해와 관련된 사진들을 사용하였고, 태아알코올증후군은 EBS 다큐프라임 동영상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음주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정보에 대해 수정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대상자들이 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동안 음주를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어떠한지 나누고 자신에게 술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개별 활동에서는 술 마시는 상황에서 나의 감정, 스트레스는 어떠한지 인지기법 중 ABC모델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왜곡된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였다. 감정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던 음주를 대신할 합리적인 대안을 3가지씩 마련하여 소집단 구성원들

에게 발표하도록 하였다.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일 때 이완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 훈련을 교육하고 실습하였다.

3회기 희망나무 단계의 목표는 의사소통을 통해 음주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연습하고, 음주에 대한 자신의 결심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세우는 것이다. 집단 강의 주제는 ‘술과 의사소통’이며 이전 회기 내용을 총정리하고, 알코올에 대한 왜곡된 상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OX퀴즈를 하였다. 음주를 권유 받는 상황에서 거절하는 기술을 연습하고, 소집단별로 역할극으로 시연하였다. 또래 음주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포스터로 작성하게 하였다. 나의 10년 후 꿈과 현재 내 모습과의 대조를 통하여 변화를 위한 결심 1가지와 실천사항 3가지를 정하고, 큰 나무 그림 모형에 꿈, 결심, 실천 사항을 적고 건강 행위로의 변화 과정을 씨앗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 비유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다. 각 회기의 마무리에는 소집단별로 회기를 통해 배운 것과 느낀 점을 나누었다.

소집단 활동 시에는 본 연구에 대해 사전에 훈련된 연구보조원, 인성수련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지도사, 연구자가 각각 소집단에 들어가 대상자의 질문에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대상자들의 리더가 주된 활동을 이끌어 갈 때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고무하면서 리더를 보조하였다.

Table 2에서 각 회기별 내용을 제시하였고, 회기마다 시행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부록 1).

Table 2. Sessions & Contents of the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Session	Contents
1 Seed step	1) Orientation(20min) 2) Lecture(45min): ‘Female adolescents & alcohol-drinking’ · Alcohol and its metabolism · Alcohol-drinking in Korean adolescents · The physiological difference between woman and man, adolescent and adult · Alcohol-related harms 3) Break time(5min) 4) Small group activity(40min) · Drawing mind-map of alcohol-drinking · Sharing experiences of alcohol related harms · Figuring out what my dreams are and what I am 5) Wrap up(10min)
2 Sprout step	1) Orientation(10min): Quiz 2) Lecture(50min): ‘Stress and alcohol-drinking’ · Motivation of drinking in adolescents · Controlling alcohol-related emotions and stress management · Effect of mass media 3) Break time(10min) 4) Small group activity(40min) · Cognitive approach · Relaxation training(Abdominal respiration,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5) Wrap up(10min)
3 Hope-tree step	1) Orientation(10min) 2) Lecture(50min): ‘Alcohol-drinking and Communication’ · O/X Quiz ·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3) Break time(10min) 4) Small group activity(40min) · Expressing refusal through role play · Drawing alcohol prevention poster · Making a hope-tree(My dream, What I am, Commitment) 5) Wrap up(10min) 6) Awards ceremony & Post test

#### 4) 프로그램 시행 환경

연구 장소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소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 내의 강당을 이용하였다.

### 5.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6월 13일부터 2014년 8월 11일까지였다. 실험처치의 확산 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조군의 자료수집을 먼저 시행하여 사전조사는 2014년 6월 13일, 사후조사는 6월 27일에 실시하였다. 실험군의 사전조사는 7월 17일, 실험군 중재는 7월 21일~8월 11일, 사후조사는 실험처치를 마친 날 8월 11일에 실시하였다. 또한 후광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군의 사전 및 사후조사는 중재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닌 연구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고 훈련된 연구보조원 1명이 시행하였다.

#### 1) 연구대상자 보호와 연구윤리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보호치료시설 M센터로부터 자료 수집을 허락 받고, 연구 계획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No.1406/001-008)의 승인을 받았다(부록 1).

연구 대상자와 법적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소요시간, 연구자 연락처,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과 언제든지 연구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와 보호자의 자필로 작성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연구 중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개인의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하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을 종료 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든 참여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품과 프로그램 중 자신의 꿈과 변화를 위한 결심을 적어 희망나무에 만들었던 것을 핸드폰 또는 열쇠고리로 제작하여 선물하고 결심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도록 지지하였다. 대조군에서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실험군과 같은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 2) 사전조사

실험 전 1차 자료 수집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3) 실험처치

실험처치는 윤혜미(2008)의 ‘학교중심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과 장승옥(2009)의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또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가출과 비행 상황에서 여자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실험군에게 주 1회 2시간씩 총 3회기를 실시하였다.

## 4)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실험군은 실험처치 마지막 회기에, 대조군은 사전조사 후 3주째 되는 날에 일반적 특성 질문사항을 제외한 사전조사와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2009)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Chi-square test, t-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해 사전 동질성 검정을 하였다.
- 3)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를 하였다.
- 4) 정규분포하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차이 검정은 t-test를 이용하였고, 정규분포 하지 않은 종속변수인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금주의도의 차이 검정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 5)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Kuder-Richardson formula 20, Cronbach's  $\alpha$  계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 6)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5% ( $p < .05$ )로 한다.



## V. 연구 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행위 특성

전체 대상자 수는 45명이고, 나이 분포는 최저 만 12세, 최고 만 18세로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만 16.02( $\pm 1.76$ )세이며 학업을 중단하기 전의 교육 수준은 중1 7명(15.6%), 중2 8명(17.8%), 중3 16명(35.6%), 고1 10명(22.2%), 고2 1명(2.2%), 고3 3명(6.7%)이고, 현재는 45명 모두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이다. 입소일로부터 조사 시점까지 대상 기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최소 34일째, 최대 157일째이며 전체 대상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86( $\pm 38.55$ )일째이다.

대상자 전체인 45명(100%) 모두 음주 경험이 있으며, 음주를 처음 시작했던 나이는 최저 만7세에서 최고 만17세로 평균 만 12.91( $\pm 1.73$ )세이다. 음주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2명(71.1%), 참여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3명(28.9%)이다. 음주예방 교육기관으로는 학교가 14명(46.7%), 가정 1명(3.3%), 상담센터 9명(30.0%), 기타 시설 또는 행인, 선배로부터 교육받은 경우가 6명(20.0%)이다. 센터 입소 전 음주대상자의 월간 음주일수는 최소 0일부터 최대 30일까지이며 평균 13.69( $\pm 10.06$ )일이고, 1회 음주 시 음주량은 표준 소주잔 기준으로 최소 0잔부터 최대 65잔까지 평균 24.20( $\pm 16.19$ )잔이다. 소주잔으로 3잔 이상 마신 월간 폭음일수는 최소 0일에서 최대 30일까지이고 평균 10.69( $\pm 9.09$ )일이다(Table 3).

Table 3.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xp.(n=23)	Cont.(n=22)	Total(N=45)	$\chi^2$ or t	p
	n(%)	n(%)	n(%)		
	Mean±SD	Mean±SD	Mean±SD		
Age(years)	16.00±1.90	16.05±1.64	16.02±1.76	0.08	.932
Education					
Middle school 1 <sup>st</sup>	4(17.4)	3(13.6)	7(15.6)		
Middle school 2 <sup>nd</sup>	5(21.7)	3(13.6)	8(17.8)		
Middle school 3 <sup>rd</sup>	5(21.7)	11(50.0)	16(35.6)	7.70*	.135
High school 1 <sup>st</sup>	8(34.8)	2(9.1)	10(22.2)		
High school 2 <sup>nd</sup>	0(0.0)	1(4.5)	1(2.2)		
High school 3 <sup>rd</sup>	1(4.3)	2(9.1)	3(6.7)		
First Drinking(years)	12.78±2.13	13.05±1.21	12.91±1.73	0.50	.616
Residence period(days)	78.35±33.75	94.23±42.25	86.11±38.55	1.39	.170
Drinking Frequency (days/month)	13.30±8.99	14.09±11.27	13.69±10.06	0.25	.797
Drinking Amount (standard drinks/day)	24.00±13.55	24.41±18.88	24.20±16.19	0.08	.934
Binge Drinking <sup>†</sup> (days/month)	10.65±8.64	10.73±9.74	10.69±9.09	0.02	.978
Drinking Prevention Program					
Participated	15(65.2)	17(77.3)	32(71.1)	0.79*	.514
Not participated	8(34.8)	5(22.7)	13(28.9)		
Institutions					
School	6(42.9)	8(50.0)	14(46.7)		
Home	0( 0.0)	1( 6.3)	1( 3.3)	0.25	.804
Counselling Center	5(35.7)	4(25.0)	9(30.0)		
etc.	3(21.4)	3(18.8)	6(20.0)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Fisher's exact test

†Binge Drinking: 3 or more standard drinks on a single occasion for women(교육과학기술부 등, 2013)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음주관련 지식, 음주 결과기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금주의도에 대하여 Chi-square test, t-test, Fisher's exact test 를 이용하여 사전 동질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종속변수 중 지식과 관련된 변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음주관련 지식 점수가 대조군은 평균  $8.23 \pm 1.85$ 점이고, 실험군은 평균  $5.43 \pm 3.28$ 점이며, 임신 중 음주에 관한 지식 점수는 대조군이 평균  $5.77 \pm 2.22$ 점이고, 실험군에서는 평균  $4.04 \pm 3.00$ 점이었다. 사전 청소년의 음주관련 지식 점수( $t=3.53$ ,  $p=.001$ )와 임신 중 음주에 관한 지식 점수( $t=2.18$ ,  $p=.034$ ) 모두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한 것으로 밝혀졌다(Table 3, 4).

Table 4.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N=45)

Dependent variables	Exp.(n=23)			Cont.(n=22)			t	p
	n(%)			n(%)				
	Mean	±	SD	Mean	±	SD		
Alcohol-related Knowledge <sup>*</sup>	5.43	±	3.28	8.23	±	1.85	3.53	.001 <sup>*</sup>
Drinking in Pregnancy <sup>†</sup>	4.04	±	3.00	5.77	±	2.22	2.18	.034 <sup>*</sup>
AEQ-A <sup>‡</sup>	10.13	±	3.26	10.09	±	2.92	-0.04	.966
DRSE <sup>§</sup>	22.61	±	8.47	22.86	±	6.90	0.11	.913
Abstinence Intention <sup>  </sup>	14.30	±	3.81	14.05	±	4.30	-0.21	.832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Alcohol-related Knowledge in Adolescents scale

† Knowledge about Alcohol Consumption in Pregnancy scale

‡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Adolescent

§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scale

|| Intention to remain Abstinent from Alcohol scale

### 3. 연구가설 검증

제 1가설.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음주관련 지식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의 청소년 음주관련 지식 점수는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실시 전 5.43( $\pm 3.28$ )점에서 실시 후 12.65( $\pm 1.87$ )점으로 높아졌으며, 대조군은 사전 점수 8.23( $\pm 1.85$ )점에서 3주 후 7.68( $\pm 2.27$ )점으로 낮아졌다. 두 집단의 실험 전·후 변화에 대해 t-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9.93$ ,  $p < .001$ ).

또한 실험군의 임신 중 음주에 관한 지식 점수는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실시 전 4.04( $\pm 3.00$ )점에서 실시 후 8.17( $\pm 1.77$ )점으로 높아졌으며, 대조군은 사전 점수 5.77( $\pm 2.22$ )점에서 3주 후 5.64( $\pm 2.51$ )점으로 낮아졌다.

두 집단의 실험 전·후 변화에 대해 t-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t = -6.06$ ,  $p < .001$ ) 음주관련 지식에 대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the Alcohol-related Knowledge between Groups

(N=45)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erence		t	p
		Mean	± SD	Mean	± SD	Mean	± SD		
Alcohol-related Knowledge*	Exp.(n=23)	5.43	± 3.28	12.65	± 1.87	7.22	± 2.89	-9.93	< .001*
	Cont.(n=22)	8.23	± 1.85	7.68	± 2.27	-0.55	± 2.30		
Drinking in Pregnancy†	Exp.(n=23)	4.04	± 3.00	8.17	± 1.77	4.13	± 2.45	-6.06	< .001*
	Cont.(n=22)	5.77	± 2.22	5.64	± 2.51	-0.14	± 2.25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Alcohol-related Knowledge in Adolescents scale

† Knowledge about Alcohol Consumption in Pregnancy scale

제 2가설.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음주 결과기대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

실험군의 음주결과에 대한 기대 점수는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실시 전 10.13( $\pm 3.26$ )점에서 실시 후 7.96( $\pm 4.45$ )점으로 낮아졌으며, 대조군은 사전 점수 10.09( $\pm 2.92$ )점에서 3주 후 9.95( $\pm 3.18$ )점으로 낮아졌다.

두 집단의 실험 전·후 변화에 대해 t-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t=2.13$ ,  $p=.040$ )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the Alcohol Expectancy between Groups

(N=45)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erence		t	p
		Mean	± SD	Mean	± SD	Mean	± SD		
Alcohol Expectancy*	Exp.(n=23)	10.13	± 3.26	7.96	± 4.45	-2.17	± 3.98	2.13	.040*
	Cont.(n=22)	10.09	± 2.92	9.95	± 3.18	-0.14	± 2.18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Alcohol Expectancy Questionnaires–Adolescent(AEQ–A)



제 3가설.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점수는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실시 전 22.61( $\pm 8.47$ )점에서 실시 후 24.78( $\pm 7.61$ )점으로 높아졌으며, 대조군은 사전 점수 22.86( $\pm 6.90$ )점에서 3주 후 23.68( $\pm 6.44$ )점으로 높아졌다.

두 집단의 실험 전·후 변화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Z = -0.79$ ,  $p = .426$ ) 가설 3은 기각되었다(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th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between Groups  
(N=45)

<b>Variables</b>	<b>Group</b>	<b>Pre</b>		<b>Post</b>		<b>Difference</b>		<b>Z</b>	<b>p</b>
		Mean	± SD	Mean	± SD	Mean	± SD		
DRSE*	Exp.(n=23)	22.61	± 8.47	24.78	± 7.61	2.17	± 7.83	-0.79	.426
	Cont.(n=22)	22.86	± 6.90	23.68	± 6.44	0.82	± 6.52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scale

제 4가설.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중재 후 금주의도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실험군의 금주의도 점수는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실시 전 14.30( $\pm 3.81$ )점에서 실시 후 15.61( $\pm 3.73$ )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사전 점수 14.05( $\pm 4.30$ )점에서 3주 후 14.73( $\pm 3.80$ )점으로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 전·후 변화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Z = -0.86$ ,  $p = .387$ ) 가설 4는 기각되었다(Table 8).

Table 8.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the Alcohol Abstinence Intention between Groups

(N=45)

<b>Variables</b>	<b>Group</b>	<b>Pre</b>		<b>Post</b>		<b>Difference</b>		<b>Z</b>	<b>p</b>
		Mean	± SD	Mean	± SD	Mean	± SD		
Alcohol	Exp.(n=23)	14.30	± 3.81	15.61	± 3.73	1.30	± 3.21	-0.86	.387
Abstinence									
Intention*	Cont.(n=22)	14.05	± 4.30	14.73	± 3.80	0.68	± 2.88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Intention to remain Abstinent from Alcohol scale

## VI. 논의

본 연구는 보호치료시설에 위탁되어 거주중인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와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간호학적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 1.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 대상자의 음주 경험률은 100%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의 학교 밖 청소년 음주 경험률 83.1%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고, 처음 음주를 시작한 연령이 평균 만 12세인데다가 심지어 만 7세 즉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음주를 시작했다는 보고는 가출과 비행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볼 수 있다. 센터 입소 1달 전까지 월간 음주일수는 평균 13일이고, 1회 음주 시 음주량은 표준잔으로 평균 24잔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성인의 폭음 기준을 넘어선 수치로 폭음으로 인한 음주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설문 문항에는 없었지만 대상자들이 입소 후 금주 중인 상황에서 술에 대한 갈망을 심하게 느끼고, 안절부절 못함, 손떨림과 같은 금단증상을 자발적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음주문제 예방뿐만 아니라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치료적 중재도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갖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 점수가 증가하였고, 이는 대조군 보다 유의한 변화( $p < .001$ )를 보이는 결과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 음주관련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연구된 남녀 초등학생, 남녀 중학생, 실업계 여고생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예방프로그램, 음주여대생을 위한 자기효능증진 절주프로그램, 대학생들을 위한 웹기반 음주문제 예방교육프로그램과 대학생 절주를 위한 홍보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 음주관련 지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광기, 제갈정, 박민수와 이재국, 2011; 박가람, 2009; 박경, 2014; 박명희, 2010; 정문희 등, 2006; 최순희와 박민정, 2008).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 또한 음주관련 지식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인 바 학교 밖 여자청소년에게도 알코올과 음주문제에 대한 교육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경현(2013)은 음주관련 지식이 중학생의 문제성 음주에 대해 유의한 예측변인이라 보고하며, 지식과 정보의 부족, 또는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수정하기 위하여 음주관련 보건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음주 예방교육 경험률은 39.3%이고, 음주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하여 학교 청소년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대상자들에서는 과거 음주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71.1%로 선행 보고서의 결과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음주 예방교육 경험자의 50%가 가출 이후 쉼터나 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음주 예방교육을 받기 전에 청소년들은 이미 음주를 시작하였으므로 현행하는 음주 예방교육은 더 어린 연령의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지식 점수가 크게 향상된 것을 통해 대상

자의 흥미, 이해 수준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고려한 반복적인 교육이 가출과 비행에 노출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대한 음주폐해 예방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여자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 중재를 위한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대상 기관들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음주 결과기대 점수가 감소하였고, 이는 대조군 보다 유의한 변화( $p < .05$ )를 보이는 결과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은 음주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부정적인 기대감으로 전환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녀 중학생과 실업계 여고생, 음주 여대생, 남녀 대학생에게 제공한 절주홍보 교육프로그램, 동기화 중재 프로그램, 웹기반 음주문제 예방프로그램, 자기효능증진 절주프로그램 시행 후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부정적 기대로 유의하게 변화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광기 등, 2011; 박가람, 2009; 박경, 2014; 이혜일, 2007; 최순희와 박민정, 2008). 또한 IMB 모델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는 행위에 대한 태도 및 결과기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금주의도 점수 차이의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효과가 검증된 전략인 음주거절 의사소통훈련을 위한 역할극을 시행하고, 동기강화를 위한 의사소통을 통해 행위에 대한 변화 동기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였으나 실제 음주를 거절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금주의도 향상에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로 음주 예방 중재의 선행연구 대부분은 음주정도가 약하

거나 아직 음주를 시작하지 않은 학교청소년에게 음주의 개인적, 사회적 위험요소를 경감시키고, 보호요소를 강화시켜 음주 시작 시기를 늦추는 1차 예방의 목표를 두고 있으나(신경은, 2006)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이미 심한 음주에 노출되어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치료적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주행위의 편차가 매우 크고, 음주동기가 다양하여 집단을 통한 중재가 개인의 편차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사료되어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중재를 고안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청소년기 또래 집단은 행동규범을 세우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며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의 역할을 한다(이석형, 2008). 또 소속감과 친밀감을 중시하여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Martino, Ellickson, & McCaffrey, 2009), 통제와 지배, 심리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친구와 자신의 갈등, 욕구불만을 나눔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한다(김수진, 2009). 이러한 또래 집단의 행동은 청소년 음주에 있어 가족보다도 더 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정슬기, 장승옥과 김성찬, 2007). 즉, 친한 친구들의 평균 음주량으로 대상자의 문제음주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이다(신행우, 2009). 또한 청소년기의 자기과시욕구로 인한 친구의 과장된 음주량과 태도를 모방하고 싶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 음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선아, 2010). 이렇게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영향을 주고받는 준거집단이 되어(이석형, 2008) 음주문제 행동에 있어서까지 서로 일치하려는 현상을 보인다(김승수, 2006). 본 연구의 대상자들처럼 가족과 학교라는 음주에 대한 보호요인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에게는 또래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하면서 금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음주관련 지식과 음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어도 행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변수인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금주의도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본 대상자들의 솔직한 표현일 수 있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또래집단에 대한 영향을 탐색하고, 또래집단을 함께 긍정적인 역할로 전환시키는 전략 또는 새로운 자조집단을 통한 변화를 지지하는 전략을 고안할 필요가 있겠다.

## 2.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적용

본 연구의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은 음주 고 위험군인 학교 밖 여자청소년에게 여성 음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주 또는 절주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며, 음주를 줄이거나 술을 끊을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금주의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중재이다. 사용된 프로그램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에 관한 것이다. 음주에 관한 정확한 지식 전달을 위해 집단 강의를 구성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음주 습관과 동기에 대해 탐색하고, 음주가 아닌 다른 대안들을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대상자들에게 흥미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집단별 역할극을 통해 의사소통 훈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음주행태를 관찰하며 자신의 음주 상황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또한 소집단으로 이루어진 연구자와 대상자 사이의 질의응답 및

대상자들 간의 경험나누기, 지지와 격려하기, 역할극으로 시연하기 등은 Bandura의 언어적 설득 및 대리경험의 자원을 획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집단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친구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거나 행동을 모방하고, 음주에 있어서도 같은 규범과 태도를 공유하는 강한 또래결속력을 가지고 있는데(조혜정, 2014), 특히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또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여자청소년이 음주 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여도 또래로부터 소외당할 것 같은 소속감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주라는 행위 변화를 실천하고, 그것을 매개하는 자기효능감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김미정과 고명숙, 2008).

또한 비행과 음주를 하는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유대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발달단계에서 적절한 가정 내 애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또래집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민원홍, 2014; Steinberg & Silverberg, 1986 재인용).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더 건강한 애착형성을 통해 적절한 또래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미 형성된 또래집단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또래응집력을 통해 중재적 효과를 증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들은 감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어려워한 반면, 역할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실적으로 재연하여 집단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다른 집단들도 깊이 공감하고 이입하는 모습이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을 인지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면의 생각이나 신념을 찾아내는 것을 복

잡하게 여겨 쉽게 포기하고, 불유쾌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켜 객관화가 어려웠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낮은 지적 수준과 충동조절 능력의 부족 그리고 문제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감각추구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서경현과 조은희, 2011; 유진이, 2009). 강렬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을 공유할 수 있는 역할극은 선호하게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인지적 접근은 학습처럼 느껴져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역할극 중 음주를 권유받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로 음주를 거절하 다가도 결국 의지를 꺾고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말은 한결같이 “너 때문에 술자리 분위기 망친다. 이제 술자리에 안 부를거다.” 라는 말이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불안하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술 좀 마신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친구 기분 망칠 필요가 있나. 술자리에 빠지면 진짜 왕따가 될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반면 술을 권유하던 친구들이 더 이상 권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만류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엄마가 간암으로 죽었어. 그래서 난 술 마시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구성원들이 “넌 정말 술 마시면 안 되겠다. 그냥 안주만 먹어.” 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가까운 사람의 술로 인한 피해 경험을 듣게 되니 경각심이 들었다고 하였다. 이런 사례를 통해 Bandura의 자기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원 중 대리경험이 대상자들의 동기 유발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추후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여성이나 태아알코올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을 듣거나 관련 영상을 보는 등의 음주 폐해를 겪었던 경험자의 사례를 통한 대리경험의 기회를 추가할 수 있겠다.

둘째, 프로그램의 소요시간과 회기에 대한 것이다. 음주폐해 예방 프로그램은 총 3회기로 진행되었는데, 1·2회기는 1주 간격으로 진행되었고, 3회기는 대상자들의 검정고시 일정으로 인하여 1주가 연기되어 2주 만에 시행되었다. 1회기 분위기는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들이 있었다. 설문지에는 음주량과 빈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도 음주경험을 이야기할 때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하다가 다른 대상자들이 음주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강의 때는 팔, 다리에 낙서를 하며 관심 없는 듯 하면서도 활동과 체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2회기에는 관심과 호응이 높아져 시작 전부터 1회기에서 배운 ‘아세트알데히드’, ‘중추신경계 흥분제’, ‘태반’, ‘태아알코올 증후군’과 같은 퀴즈의 정답을 외치며, 경쟁적으로 연구자의 관심을 끌고,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특히 중독 기전,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 태아알코올증후군의 동영상을 볼 때는 엎드려 있던 자세를 똑바로 하며 집중하였고, 소감에서도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하였다. 3회기는 대상자들의 검정고시로 인하여 2주의 공백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다음 날 있을 축제 연습을 하다가 모인 상황으로 프로그램 시간이 미리 예정되었음에도 축제 연습이 중단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 대상자들이 소집단 내에서 저항감을 보이며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들의 부정적 반응은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저항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사후 설문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회기 당 2시간으로 구성된 시간은 학업 중단으로 오래 앉아 강의를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집중을 유지하는데 어려

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러 가지 관련 영상과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로 흥미를 돋우면서 최대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었던 시간은 40분이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후에는 휴식과 활동적인 소집단 작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비행과 음주를 겪는 청소년들에서 충동성이 높고, 자기 통제력에서는 낮은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추후 프로그램에서는 회기를 늘리고 회기 당 시간을 줄이거나 적절한 휴식 시간의 안배 또는 몸을 움직이며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작업을 추가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김현수와 김현실, 2002).

또한 금주 동기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은 개별적인 질문과 자신의 음주 습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금주 동기를 형성한 대상자들을 위한 개별적인 중재나 자조집단과 같이 동일한 목표를 가진 또래집단을 재구성해주는 내용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치료자적 자원으로서의 이점이다. 연구자는 이미 자원봉사 3년의 경험으로 대상자들에게 비영리적 목적으로 청소년을 동반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청소년을 동반할 것이라는 신뢰를 얻어, 프로그램을 하게 된 동기부터 대상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 음주 폐해를 설명하기에 앞서 대상자들은 존재 자체로써 의미가 있고, 여성으로서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소중히 하여야 하며, 미래의 건강한 가정의 모성이 사람들이라는 인식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면서 대상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였다. 내용 중 가장 대상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태아알코올증후군’에 대한 동영상이었다. 태아알코올증후군의 아이가 재활하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대상자도 있었다. 회기 종료 후 눈물을 흘렸던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물었을 때 “술을 마시지도 않은 아이 얼굴이

기형인 것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전 임신하면 절대 술 안 먹어요.” 라고 답하는 것은 여성성 및 모성성에 대한 대상자의 공감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자가 프로그램에서 일관되게 유지하고자 했던 것은 교육적 중재를 하면서도 대상자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내용을 설명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상황과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연구자의 경험을 개방하며 공감을 표현하면서 라포를 형성하고자 했다. 대상자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들어 바로 답을 하기도 하지만 반영적 질문 통해 교육 내용에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대상자들은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했고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현재 자신의 행위와 꿈의 불일치감을 탐색하는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변화에 대한 다짐을 유도 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술을 끊을 생각이 없다던 대상자가 검정고시에 합격 해 대학 가는 게 꿈인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 암기가 잘 안 된다고 말하였다. 연구자는 알코올이 청소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문제에 대한 인지적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상자가 공부하는 동안은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변화의지를 표현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소집단 내에서 전문적 지식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보조원과 연구자가 대상자들의 질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5명의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술이 일으키는 문제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았다는 것, 자신이 경험했던 문제들이 술이 원인이었다는 것, 알코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된 것들이 좋았다고 말하였고,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이미지가 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또한 인상에 남는 주제로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언급하며 5명 모두 임신을 하거나 계획 중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임신 사실을 모르고 마셨더라도 아는 즉시 술을 끊겠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설문 응답에서 대상자들의 지식과 태도는 변화하였는데 정작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과 금주의도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설명하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2명은 밤에 친구들을 만날 때 음주가 아니면 놀거리가 없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면 마음 속 이야기를 하기가 편해서 그 유혹을 참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른 3명은 친구들이 권유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상사가 권유하거나 회식자리에서 동료가 권유할 때는 거절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 5명 모두 센터에서 퇴소하게 되면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 대상자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회기와 시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며 공동 작업이나 활동을 적절히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에게 전문적이면서도 보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표현되는 진행 기술이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건강으로 향하는 삶의 태도를 정착시키고, 행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시기이다. 따라서 불건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을 요구하기보다 사회·환경적 노력이 함께 병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금주하겠다는 변화를 결심한 또래들끼리 새로운 자조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존 음주행위를 지속하는 집단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또래 경험을 통해 자조집단 안에서 소속감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하고, 자신이 다른 또래 교육의 훈련모델이 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의 연대감 및 학교애착, 학교에 대한 만족감은 향후 청소년들의 음주시작을 늦추거나 음주행위를 감소시키고(Zimmerman & Schmeelk-Cone, 2003), 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 의사소통 기술, 갈등해결 능력,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도감독, 적절한 양육태도 기술 향상 등을 포함하는 가족중심의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 음주에 있어 보호요인을 강화시켜(김지은과 제갈정, 2001; 현안나, 2012) 청소년의 음주 문제를 예방한다. 그러나 본 대상자들은 학교와의 연대가 단절된 상황이고, 가족과의 갈등이 흔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모교육 및 가족중심의 예방 프로그램을 청소년과 함께 구성하여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고 유대관계를 촉진시키는 기회가 필요하다. 한편 어떠한 이유로도 성인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를 대신하는 대안시설이나 쉼터,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해 정기적인 돌봄을 받고, 건강증진 및 자가 간호 능력 향상을 위한 예방적 중재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요구된다.



### 3.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는 가출과 비행으로 일 기관에 감호 위탁된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모든 학교 밖 여자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2) 본 연구는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사전, 사후로만 확인하였으므로 중재의 지속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다.
- 3) 연구 결과 상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많은 대상자들임에도 조사 시점은 음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의 음주폐해의 추이를 알 수 없었다.

#### 4.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간호 실무, 연구,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간호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간호의 대상자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중재를 시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정신간호 중재는 대부분 학교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데에 반해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적인 수혜에서 소외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 지역사회 내에서 시행한 적극적인 중재라는 점이다. 이에 의의를 두고,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독립기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 간호사의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특별한 음주상황을 고려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의 중재를 제공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강점이다.

간호 연구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독 영역에서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근거기반의 실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건강증진 및 관리, 자가 간호 능력을 향상시킬 다양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예방교육적 중재의 경험사례가 되었으므로 정신간호 중재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간호사, 관련 분야 종사자, 대상자의 가족 및 지지체제로 하여금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VI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가출과 비행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중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된 무작위배정 대조군 시차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모집된 46명의 대상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하고, 실험군에게 주 1회 2시간씩 총 3회기의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실험군 23명과 대조군 22명의 총 45명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시행하였고, 연구 가설 검정을 위해 t-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5%( $p < .05$ )로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은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음주관련 지식 향상과 음주 결과기대 전환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과 금주의도 변화에 대한 효과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음주 고 위험군인 학교 밖 여자청소년에게 여성 음주 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음주와 관련된 스트레스 및 감정 다루기, 역할극을 통한 의사소통 훈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동기 형성을 지지하고, 학교 외 지역사회에서 시행한 적극적인 중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음주행위의 편차가 크고, 음주동기가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보다 개별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주 또는 절주 동기가 형성된 대상들에게 자조집단 구성 및 개별적 중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에서 개별적 접근을 통해 변화에 대한 대상자의 자발적 동기를 지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상자 특성과 유사한 집단에게 사전 예비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구성해볼 것을 제언한다.

넷째, 대리경험 자원을 통해 중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여성이나 태아알코올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담을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종속변수를 다른 변수로 측정해볼 것을 제언한다.

여섯째, 변화에 대한 동기를 표현한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새로운 또래 그룹을 형성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을 활용한 중재를 제언한다.

일곱째, 양적 연구 외에도 학교 밖 여자청소년들이 음주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근본적인 욕구와 의미를 알아보고, 해결점을 대상의 경험에서 찾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여덟째, 청소년 시기는 변화를 유발하고,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에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간호중재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지식체를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제9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 서울: 질병관리본부.
- 교육법전 편찬회 (2013).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국립국어원 (2008).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판)*. 서울: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광기, 제갈정, 박민수, 이재국 (2011). 대학생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능성 평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5), 131-143.
- 김남조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동기강화 집단상담의 효과*. 한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상북도.
- 김미정, 고명숙 (2008). 음주관련 요인에 따른 남녀고등학생의 음주태도 비교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9(2), 73-83.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석주 (2005). *자기효능감과 음주기대가 청소년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인문계 고교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선아 (2010). 중·고등학교 시기의 심리사회요인과 고2학년 음주흡연행동의 관계: 친구관계, 스트레스, 우울감, 자존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3), 31-57.
- 김성재 (1996). *알코올리즘의 재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수옥 (2008). 여자 중학생의 음주경험과 금주의도 및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7(1), 1-9.
- 김수진 (2009). *초등학생의 음주효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초*

- 등학교 교학년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기.
- 김순규, 김숙경 (2009).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6(9), 105-124.
- 김승수 (2006). 청소년의 음주의도와 음주행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7(2), 73-96.
- 김영미 (2006).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통제적 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6), 151-178.
- 김용석 (2004). 청소년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에 관한 탐색: 공통요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 33-59.
- 김용석, 박명숙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 김은숙, 정혜선 (2010). 고위험 음주 성인여성의 특성과 영향요인.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1), 45-56.
- 김일옥, 정구철, 양은경 (2012). 임신 주 음주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임신 중 음주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4), 279-289.
- 김지경, 김균희 (2013). 청소년의 음주 여부 및 빈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0(2), 317-347.
- 김지은 (2001). *고등학생을 위한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김지은, 제갈정 (2001).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김진석 (2013). 청소년 비행유형과 관련 요인. *학교사회복지*, 25, 311-332.
- 김태경, 민혜숙 (2013). 만성 간 질환자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3), 261-273.
- 김현수, 김현실 (2002). 한국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41(3), 472-485.
- 김현실 (2002). 한국 청소년 비행의 성차 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4), 492-505.

- 김희화 (2009). 청소년 초기의 또래동조성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 및 친한 친구 비행의 중재효과. *한국청소년학회*, 16(7), 127-147.
- 나장원 (2008). *청소년 음주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도은영 (2009). *일개지역의 여성음주실태*. 한국알코올과학회 학술대회, 2009(1), 168-186.
- 도은영, 홍연란 (2011). 임신부의 임신 중 음주 발생 관련 요인. *보건사회연구*, 31(3), 284-307.
- 도은영, 홍연란 (2012). 중학생의 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9(3), 1-23.
- 류나미 (2003). *또래압력, 부모감독 및 음주기대와 청소년 음주행동*.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충청북도.
- 류나미, 윤혜미 (2008).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또래동조성향 및 부모의 관리감독이 청소년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음주기대와 음주거절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5, 39-69.
- 민원홍 (2014).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발달체적에 대한 신체적 공격성의 영향: 친구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1), 283-304.
- 박가람 (2009). *음주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 박경 (2014). *자기효능증진 질주프로그램이 음주 여대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 음주결과기대 및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광주.
- 박명희 (2010). *중학생 음주 흡연 통합 예방프로그램 효과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상남도.

- 박상열 (2010). 6호 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현황과 문제점. *소년보호연구*, -(15), 193-218.
- 박재은, 정슬기, 서진환 (2012). 여자청소년의 음주의도에 관한 연구. *학 교사회복지*, 23, 71-99.
- 박하나, 장수미 (2012). 성장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성폭력 피해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49-176.
- 백혜정, 임희진 (201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 리포트, 54.
- 법무부 (2013). *법전*. 과천: 법무처.
- 서경현 (2013).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중학생의 음주 특성과 문제성 음주 및 금주의지. *청소년학연구*, 20(6), 243-264.
- 서경현, 양승애 (2010). 중학생의 음주 지식 및 태도와 음주 행위 요인 간의 관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1), 15-26.
- 서봉연, 김경식 (2014). 남녀 청소년의 비행참여 차이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4(1), 111-145.
- 서우석, 정철영, 이광호, 재영병, 허영준, 김재호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 개선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활성화 방안. *직업 교육연구*, 26(1), 106-133.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4). *학교 밖 청소년 백서*. 서울: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손애리, 박지은 (2006). 전국 대학생의 비폭음자와 폭음자 간의 위험성 행동 비교. *한국알코올과학회지*, 7(1), 27-36.
- 송광성, 구정화, 이영아, 김소희 (1992).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신경은 (2006). *음주예방프로그램이 실업계여고생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신수미, 손애리 (2008). 전국 중학생의 음주실태, 지식 및 태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9(1), 13-26.
- 신행우 (2009). 대학생 음주규범 지각과 음주 및 음주문제의 관계. *한국*



- 심리학회지 건강, 14(4), 871-890.
- 심성옥, 이진우, 손영곤 (2009). 여대생 절주 캠페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음주행동 영향 요인 분석. *한국광고홍보학회*, 11(1), 204-247.
- 양수, 송경애, 조선진 (2003). 고등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및 태도와 음주행위의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2(4), 463-471.
- 유순화, 정규석 (2003). 청소년 음주·흡연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0(2), 195-214.
- 유정옥, 김현희, 김정순 (2014). 중학생의 성경험 영향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3), 159-167.
- 유진이 (2009).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심리적 지도방안. *청소년학연구*, 16(11), 229-257.
- 윤명숙, 이재경 (2014). 비행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음주행동의 관계에 미치는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1), 155-180.
- 윤명숙, 조혜정 (2011). 청소년음주행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13(3), 43-66.
- 윤희미 (2008). *학교중심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 경기: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윤희미, 김용석, 장승옥 (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8, 153-179.
- 이경상, 김지연, 최수미, 이순래 (2012). *청소년 흡연, 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규미 (2008). 청소년상담 동기강화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6(1), 119-137.
- 이동수, 정명숙 (2007).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광주, 전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정책*, 31(-), 125-148.
- 이석형 (2008).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타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5(1), 223-246.
-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이인숙, 김종임, 배정미, 이선미 (2009). *간호연구*

와 통계분석. 서울: 수문사.

- 이은희, 유혜옥, 박상미 (2009).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음주기대효과가 음주관련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2(4), 91-118.
- 이재경, 정슬기 (2010).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음주 영향요인의 경로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24-153.
- 이재경, 정슬기, 김지선 (2012). 주류광고가 비음주경험 청소년의 음주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289-318.
- 이정숙, 김수진, 권영란 (2009). 청소년 흡연과 음주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2), 105-115.
- 이정환(2010). 청소년 음주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2), 61-72.
- 이지민 (2005).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지각된 이득 및 소실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7), 147-159.
- 이지혜 (2013). *동기강화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자기통제력, 우울/불안,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상북도.
- 이춘화, 윤옥경 (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 1-354.
- 이한주, 강희선 (2011). 청소년들의 피임실천율 및 피임방법 (2007~2009).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148-156.
- 이혜경(2006). 청소년의 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 -통계로 보는 청소년의 건강-.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49(12), 1267-1274.
- 이혜일 (2007). *동기화 중재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사회 불안, 알코올 기대, 금주 자기-효능감 및 문제 음주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주.
- 장승옥 (2009). *청소년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또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경기: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정명숙, 이동수 (2008). 청소년의 음주영향요인과 음주행위 관계에 있어

-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29-58.
- 정명희 (2007). *동기강화인지행동치료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정문희, 전해정, 김미혜, 김영미, 이금순 (2006). 웹기반 음주예방 교육.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2), 117-125.
- 정슬기 (2011). 금주시작연령 및 문제음주가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미치는 영향: 2009년 청소년온라인건강행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알코올과학지*, 12(1), 15-27.
- 정슬기, 장승옥, 김성천 (2007). 중고생 청소년의 알코올 남용의 심각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CRAFFT 선별도구 2점과 3점을 기준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144-167.
- 정현희 (2002). *초등학생의 음주태도에 관한 연구: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원도.
- 조혜정 (2012). 청소년의 음주와 폭력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 성별간 다집단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4), 1-23.
- 조혜정 (2014).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연구. *청소년학연구*, 21(6), 191-221.
- 조혜정, 윤명숙 (2010). 부모감독과 청소년 음주의 상호관계에 관한 종단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 259-285.
- 조희 (2000). *한국 대학생의 음주행위 예측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최순희, 박민정 (2008). 음주예방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5(2), 213-220.
- 최은진 (2005).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00(-), 75-83.
- 최희수, 도은영 (2002). 첫 음주시기에 따른 직장 근로자들의 음주행태 및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지*, 3(2), 214-220.

- 탁영란, 윤이화, 안지연 (2007). 초기 청소년의 음주경험, 음주지식, 음주  
기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7(1), 35-43.
- 한국소년법학회 (2006). *소년법*. 서울: 세창출판사.
- 한정렬 (2010). 임신 중 ‘한잔쯤이야...’ 태아에게는 치명적. *건강생활*,  
-(69), 4-5.
- 현안나 (2012). 청소년 음주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Jessor의 문제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305-333.
- 홍봉선, 남미애 (2013). *청소년복지론(제4판)*. 고양: 공동체.
- 황성현 (2010). 부모와 친구요인이 청소년 음주, 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7(6), 81-103.
- 황성현 (2012).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상호작용론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9(10),  
23-43.
- Aas, H., Klepp, K. I., Laberg, J. C., & Aaro, L. E. (1995).  
Predicting adolescents' intentions to drink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56(3), 293-299.
- Ajzen, I. & Fishbein, M. (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5), 888-918.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ngove, R., & Fothergill, A. (2003). Women and alcohol:  
misunderstood.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2), 213-219.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regul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48-287.

- Bridget F. Grant, B. F., & Dawson, D. A. (1997). Age at onset of alcohol use and its association with DSM-IV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alcohol epidemiologic survey. *Journal of Substance Abuse, 9*, 103-110.
- Brown, S. A., Tapert, S. F., Granholm, E., & Delis, D. C. (2006). Neurocognitive functioning of adolescents: Effects of protracted alcohol use.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2), 164-171.
- Chambers, R. A., Taylor, J. R., & Potenza, M. N. (2003). Developmental neurocircuitry of motivation in adolescence: A critical period of addiction vulnerabilit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6), 1041-1052.
- Chassin, L., Pitts, S. C., & Prost, J. (2002). Binge drinking trajectories from adolescence to emerging adulthood in a high-risk sample: Predictors and substance abuse outc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67-78.
- Christiansen, B. A., Smith, G. T., Roehling, P. V. & Goldman, M. S. (1989). Using alcohol expectancies to predict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after one yea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93-99.
- Chuang, Y. C., Ennett, S. T., Bauman, K. E., & Foshee, V. A. (2005). Neighborhood influences on adolescent cigarette and alcohol use: Mediating effects through parent and peer behavio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2), 187-204.
- Clark, D. B., Pollock, N., Bukstein, O. G., Mezzich, A. C.,

- Bromberger, J. T., & Donovan, J. E. (1997). Gender and comorbid psychopathology in adolescents with alcohol depend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9), 1195–1203.
- Clark, D. B., Thatcher, D. L., & Tapert, S. F. (2008). Alcohol, psychological dysregulation, and adolescent brain development.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32(3), 375–385.
- Cooper, M. L., & Orcutt, H. K. (1997). Drinking and sexual experience on first dat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2), 191–202.
- Daigle, L. E., Cullen, F. T., & Wright, J. P. (2007).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Assessing the generality–specificity debate.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5, 254–286.
- EBS 다큐프라임 (2013, 9, 2). 술의 경고 - 1부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 [동영상]. <http://www.ebs.co.kr/tv/show?prodId=348&lectId=10145369>
- EBS 다큐프라임 (2013, 9, 3). 술의 경고 - 2부 알코올에 사로잡힌 아이들 [동영상]. <http://www.ebs.co.kr/tv/show?prodId=348&lectId=10145561>
- EBS 명의 (2011, 8, 26). - 쾌락과 고통의 두 얼굴, 알코올의존 - 정신과전문의 최인근 교수 [동영상]. <http://www.ebs.co.kr/tv/show?prodId=454&lectId=3085928>
- Eftekhari, A., Turner, A. P., & Larimer, M. (2004). Anger expression, coping, and substance use in adolescent offenders. *Addictive Behaviors*, 29(5), 1001–1008.
- Eggert, J., Theobald, H., & Engfeldt, P. (2004). 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on female fertility during an 18-year period.

- Fertility and Sterility*, 81(2), 379-383.
- Ethen, M. K., Ramadhani, T. A., Scheuerle, A. E., Canfield, M. A., Wyszynski, D. F., Druschel, C. M., & Romitti, P. A. (2009). Alcohol consumption by women before and during pregnancy.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3(2), 274-285.
- Fisher, J. D., & Fisher, W. A. (1992). Changing AIDS risk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11, 455-474.
- Fisher, W. A., Kohut, T., Schachner, H., & Stenger, P. (2011). Understanding 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 among individuals with type1 and type2 diabetes an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analysis. *The Diabetes Educator*, 37(1), 85-94.
- Gordon, S. M. (2002). *Women & addiction: Gender issues in abuse and treatment*. Wernersville, PA: Caron Found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66897). Retrieved April, 10, 2014, from <http://0-files.eric.ed.gov.opac.msmc.edu/fulltext/ED466897.pdf>
- Grant, B. F., & Dawson, D. A. (1997). Age at onset of alcohol use and its association with DSM-IV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alcohol epidemiologic survey. *Journal of Substance Abuse*, 9, 103-110.
- Hawkins, J. D., Graham, J. W., Maguin, E., Abbott, R., Hill, K. G., & Catalano, R. F. (1997). Exploring the effects of age of alcohol use initiation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on subsequent alcohol mis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58(3), 280-290.
- Hayes , L., Smart, D., Toumbouron, J. W., & Sanson, A. (2004).

-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alcohol us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Research Report*, 10(-), 47-64.
- Hingson, R. W., Heeren, T., & Winter, M. (2006). Age at drinking onset and alcohol dependence: Age at onset, duration, and severity.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0(7), 739-746.
- Hotton, T., & Haans, D. (2004). Alcohol and drug use in early adolescence. *Health Reports*, 15(3), 9-19.
- Hussong, A. M., & Chassin, L. (1994). The stress-negative affect model of adolescent alcohol use: Disaggregating negative affec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55(6), 707-718.
- Informer Technologies, Inc. Retrieved April, 10, 2014, from <http://random-allocation-software.software.informer.com>
- Jernigan, D. H., Ostroff, J., Ross, C., & O' Hara III, J. A. (2004).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exposure to alcohol advertising in magazine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8(7), 629-634.
- KBS 비타민 (2013, 11, 6). 알코올 중독 [동영상]. [http://www.kbs.co.kr/2tv/enter/vitamin/view/vod/2200662\\_59886.html?kwd=%EC%95%8C%EC%BD%94%EC%98%AC&pageNum=1](http://www.kbs.co.kr/2tv/enter/vitamin/view/vod/2200662_59886.html?kwd=%EC%95%8C%EC%BD%94%EC%98%AC&pageNum=1)
- Martino, S. C., Ellickson, P. L., & McCaffrey, D. F. (2009). Multiple trajectories of peer and parental influence and their associ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heavy drinking. *Addictive Behaviors*, 34(8), 693-700.
- Massey, S. H., Lieberman, D. Z., Reiss, D., Leve, L. D., Daniel S. Shaw, D. S., & Neiderhiser, J. M. (2011). Associati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cessation of tobacco, alcohol,



- and illicit drug use during pregnancy.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20(2), 143–150.
- Matthews, C. R., & Lorah, P. (2005). An examination of addiction treatment completion by gender and ethnicity. *Journal of Addictions and Offender*, 25(2), 114–125.
- May, P. A., & Gossage, J. P. (2011). Maternal risk factors for 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s. *Alcohol Research and Health*, 34(1), 15–26.
- McBride, N., Farrington, F., Midford, R., Meuleners, L., & Phillips, M. (2004). Harm minimization in school drug education: final results of the School Health and Alcohol Harm Reduction Project (SHAHRP). *Addiction*, 99(3), 278–291.
- Miller, W. R. & Rollnick, S. (2006). *동기강화상담: 변화준비시키기* (신성만, 권정옥, 손명자 Trans.). 서울: 시그마프레스.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04). Alcohol—An important women's health issue. *Alcohol Alert*, 62. Retrieved May, 15, 2014, from <http://pubs.niaaa.nih.gov/publications/aa62/aa62.htm>
- Niclasen, J. (2014). Drinking or not drinking in pregnancy: The multiplicity of confounding influences. *Alcohol and Alcoholism*, 49(3), 349–355.
-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OSG, NIAAA, & SAMHSA] (2007). *The Surgeon General's Call to Action To Prevent and Reduce Underage Drinking*. Rockville: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US). Retrieved May, 15, 2014, from <http://www.surgeongeneral.gov/topics/underagedrinking/educatorguide.pdf>

- Riley, D., Sawka, E., Conley, P., Hewitt, D., Mitic, W., Poulin, C., Room, R., Single, E., & Topp, J. (1999). Harm reduction: Concepts and Practice. A policy discussion paper. *Substance Use and Misuse*, 43(1), 9–24.
- Rothman, E. F., Bernstein, J., & Strunin, L. (2010). Why might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lead to underage drinking among US youth? Findings from an emergency department–based Qualitative pilot study. *Substance Use and Misuse*, 45(13), 2281–2290.
- Skagerstrom, J., Chang, G., & Nilsen, P. (2011). Predictors of Drinking During Pregnancy: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Women's Health*, 20(6), 901–913.
- Snyder, L. B., Milici, F. F., Slater, M., Sun, H., & Strizhakova, Y. (2006). Effects of alcohol advertising exposure on drinking among youth.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60(1), 18–24.
- Sourander, A., Klomek, A. B., Ikonen, M., Lindroos, J., Luntamo, T., Koskelainen, M., Ristkari, T., & Helenius, H. (2010). Psychosoci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yber bullying among adolescents: A population based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7, 720–728.
- Starace, F., Massa, A., Amico, K. R., & Fisher, J. D. (2006). Adherence to antiretroviral therapy: An empirical test of the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Health Psychology*, 25(2), 153–162.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4), 841–851.

- Swahn, M. H., & Donovan, J. E. (2006). Alcohol and violence: Comparison of the psychosocial correlates of adolescent involvement in alcohol-related physical fighting verses other physical fighting. *Addictive Behaviors, 31*, 2014–2029.
- Tapert, S. F., Caldwell, L., & Burke, C. (2004). Alcohol and the adolescent brain: Human studies. *Alcohol Research and Health, 28*(4), 205–212.
- Tripodi, S. J., Bender, K., Litschge, C., & Vaughn, M. G. (2010). Interventions for Reducing Adolescent Alcohol Abuse: A Meta-analytic Review.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64*(1), 85–91.
- Warren, K. R., Hewitt, B. G., & Thomas, J. D. (2011). 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s: Researc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lcohol Research and Health, 34*(1), 4–14.
- White, A. M., & Swartzwelder, H. S. (2005). Age-related effects of alcohol on memory and memory-related brain function in adolescents and adults. *Recent developments in alcoholism, 17*, 161–176.
- Witt, E. D. (2007). Puberty, hormones, and sex differences in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Neurotoxicology and Teratology, 29*(1), 81–95.
- Zammit, S. L., Skouteris, H., Wertheim, E. H., Paxton, S. J., & Milgrom, J. (2008). Pregnant Women's Alcohol Consumption: The Predictive Utility of Intention to Drink and Prepregnancy Drinking Behavior. *Journal of Women's Health, 17*(9), 1513–1522.
- Zimmerman, M. A., & Schmeelk-Cone, K. H. (2003). A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School Motivation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2), 185-210.

Zucker, R. A., & Wong, M. M. (2005). Prevention for children of alcoholics and other high risk groups. *Recent developments in Alcoholism*, 17, 299-320.

부록 1. 연구 대상자 보호 심의결과 통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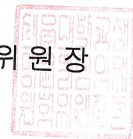
SIF 16-004

심의결과 통보서

수신	책임연구자	성명	박효진	소속	간호학과	직위	학생
	지원기관						
승인 번호	IRB No.1406/001-008						
연구과제명	학교 밖 여자청소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문조사 <input type="checkbox"/> 관찰연구 <input type="checkbox"/> 행동실험연구 <input type="checkbox"/> 조직 및 검체 연구(혈액, 체액 등) <input type="checkbox"/> 배아연구 <input type="checkbox"/>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input type="checkbox"/> 유전자연구 <input type="checkbox"/> 유전자치료연구 <input type="checkbox"/> 보관된 검체 연구 <input type="checkbox"/> 임상시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심의종류	<input type="checkbox"/> 정규심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속심의 <input type="checkbox"/> 긴급심의						
심의일자	2014 년   6 월   13 일						
심의대상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신규)			<input type="checkbox"/> 책임연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계획서(보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구참여자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계획서 변경			<input type="checkbox"/> 증례기록서			
	<input type="checkbox"/> 중간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연구참여자 모집 광고			
	<input type="checkbox"/> 중지 또는 조기종료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연구참여자 작성 일지			
	<input type="checkbox"/> 종료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구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문서			
	<input type="checkbox"/>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1년 단위 지속심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심의결과	승인						
승인일자	2014 년   6 월   13 일			승인유효기간	2015 년   6 월   12 일 까지		
정기보고주기	<input type="checkbox"/> 3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정기보고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심의의견	1. 심의결과 제출하신 연구계획에 대해 승인하며,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자께서는 승인된 문서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연구진행 과정에서 계획상에 변경사항(연구자 변경, 연구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3. 유효기간 내 연구가 끝났을 경우 <u>종료</u>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유효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2015년 5월까지 지속심의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2014 년   6 월   13 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IRB No. 1406/001-008

유효기간: 2015년 6월 12일

###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학교밖 여자청소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책임자명 : 박효진(간호대학, 연구원)

이 연구는 「학교밖 여자청소년을 위한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여러 사정으로 현재 학교를 쉬고 있는 여자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박효진, 010- - )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밖 여자청소년에게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음주관련 지식, 음주의 결과기대,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및 금주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즉, 이 연구는 귀하가 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음주폐해와 관련된 지식을 얻고, 기존에 음주에 대해 갖고 있던 기대감 및 이미지를 전환시키며, 음주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스스로 음주를 거절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여러 사정으로 현재 학교를 쉬고 있는 여자청소년 약 44명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와 음주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탐색하며 대안을 마련해보는 소집단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회기에 설문조사를 하고, 매 회기 강의와 소집단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3회 참여하게 되며, 마지막 3회기를 마친 후에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3주 동안 주 1회 매주 2시간씩 센터 내 강의실에서 전반부 50분은 전체 참여자들과 함께 여성 음주폐해에 관한 집단강의를 듣습니다. 각 강의에는 동영상 및 PPT 자료들이 활용될 것이며,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10분 휴식시간이 제공되고, 매 회기 후반부 50분은 5-6명의 소집단을 만들어 토론 및 역할극 등을 통하여 각 회기의 주제 활동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분간 회기 내용을 정리한 후 각 회기의 프로그램을 마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은 센터 내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제공해주신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 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 결과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후에는 설문지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3주 동안 주 1회 2시간씩 총 3회기를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원 박효진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있습니까?**

연구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가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이득은 음주폐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식을 제공받으며, 음주 상황에서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여자청소년의 음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중재 개발에 간접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간호대학 연구원 박효진(02- - )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땀가가 지급됩니까?**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삼천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박효진 전화번호: 010- - E-mail: \_\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원 박효진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연구원이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

연구참여자 성명

---

서 명

---

날짜 (년/월/일)

---

법정 대리인 성명(참여자과 관계)

---

서 명

---

날짜 (년/월/일)

---

연구책임자 성명

---

서 명

---

날짜 (년/월/일)



부록 3. 음주폐해 예방 프로그램의 회기 별 구성 내용

1회기 씨앗단계

일 시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10:00-12:00	
제 목	여자청소년과 술	
주 제	술이 여자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목 표	청소년 음주 실태와 음주로 인한 문제들을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음주 성향 및 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준비물	PPT, 노트북, 빔 프로젝터, Fatal vision, 사인펜, 색연필, Worksheet	
단계(시간)	내 용	비 고
도 입 (2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자, 연구보조원, 참여자 소개 및 별칭 짓기</li> <li>2.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목적, 시간, 장소, 내용을 설명한다.</li> </ul> </li> <li>3. 집단 규칙을 정하고, 참여자들의 동기와 기대 확인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정된 규칙내용: 약속 잘 지키기,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조용히 듣기, 욕설이나 비난, 무시하지 않기, 수다 떨지 않기</li> <li>2)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내용: 술에 대해 알고 싶다, 술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궁금하다, 술을 끊고 싶다. 엄마가 술을 끊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li> </ol> </li> <li>4. 지지적인 환경 만들기: 참여자들이 긍정적이고 편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고, 참여 의식을 높인다.</li> </ol>	
전 개 (80분)	<p>[집단 강의] 40분</p> <p>주제: ‘여자청소년과 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술이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느낌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고 발표하기(Worksheet 1)</li> <li>2) 술의 정의, 성분, 대사과정에 대한 정보제공</li> </ol> </li> </ol>	정보제공 및 동기강화

	<p>2.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실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주 허용 연령, 법적 규제를 하는 이유</li> <li>2) 친구들이 마시고 나도 마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li> <li>3) 술을 마시는 청소년 중에 성인보다도 더 많은 양을 위험하게 마신다.</li> </ol> <p>3.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p> <p>4.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 신체적, 정서적 발달</p> <p>5. 술로 인한 고통 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체적 문제: 인체모형을 보면서 술이 거치는 신체 장기들을 확인한다.</li> <li>2) 청소년의 뇌에 미치는 영향</li> <li>3) 잠재적 문제: 태아알코올증후군</li> </ol> <p>자료: 동영상&lt;EBS 다큐프라임&gt;, 인체모형, Fatal vision</p> <p>[휴식] 10분</p> <p>[개별 활동] 30분</p> <p>1. Fatal vision 착용 후 소감 나누기 (Worksheet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에 테이프로 줄을 긋고 안경 착용 후 끝까지 걸어갔다가 되돌아오기</li> <li>- 안경 쓰고 친구 앞에 걸어가 ‘하이파이브’ 하기</li> <li>- 친구에게 걸어가 볼펜 전달해주기</li> </ul> <p>2. 내가 겪었던 술로 인한 문제 나누기</p> <p>3. 내가 바라는 나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서 차이 발견하기</p>	
정리 및 평가 (20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자 청소년 음주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음주 예방을 위한 자기 결정과 책임을 강조한다.</li> <li>2. 이번 회기에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소감을 나눈다. 다음 회기 참여를 격려한다.</li> </ol>	

## 2회기 새싹단계

일 시	2014년 7월 28일 월요일 10:00-12:00	
제 목	술과 스트레스	
주 제	술을 마시는 이유를 확인하고, 감정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훈련하기	
목 표	자신의 음주 동기를 확인하고, 음주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및 스트레스를 탐색하여 음주가 아닌 다른 대안적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준비물	마이크, PPT, 노트북, 빔 프로젝터, Worksheet, 색연필, 사인펜, 볼펜, 상품	
단계(시간)	내 용	비 고
도 입 (20분)	단답형 미니퀴즈를 통해 지난 회기 내용 복습 (가장 많이 맞춘 사람 1명을 선발하여 3회기 시상식 때 상품 제공)	
전 개 (80분)	<p>[집단 강의] 40분</p> <p>주제: ‘술과 스트레스’</p> <p>1. 술로 인한 고통 II</p> <p>    1) 정신 심리적 문제(기분/불안장애, 알코올 의존증)</p> <p>    2) 사회적 문제(폭력, 성폭력, 데이트 강간, 교통 및 안전사고)</p> <p>2. 왜 술을 마실까? - 청소년의 음주동기</p> <p>    1) 대중매체의 영향(Worksheet 3)</p> <p>    2) 감정 및 스트레스의 영향</p> <p>    3) 또래집단의 영향</p> <p>3. 부정적 감정 및 스트레스 관리 기술</p> <p>    1) 감정 다루기 훈련: ABC모델 설명</p> <p>    2) 호흡법과 이완법의 생리적 효과</p>	정보제공 및 자기인식

	<p>[휴식] 10분</p> <p>[개별 활동] 40분</p> <p>1. 모듈별 게임: 감정 단어 맞추기</p> <p>1) 모듈별로 1명씩 나와 감정 단어가 적힌 종이를 뽑고 그 내용을 행동으로 표현한다.</p> <p>2) 나머지 모듈원들은 행동을 보고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아맞춘다.</p> <p>3) 맞춘 모듈에게 승점을 부여하고, 마지막 회기에 가장 승점이 높은 모듈은 시상한다.</p> <p>2. 내가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 나누기</p> <p>3. 센터에 거주하는 동안 술을 안 마시는 것에 대한 생각과 느낌 나누기</p> <p>4. 음주 원인이 되었던 감정 다루기: 인지적 접근(Worksheet 4)</p> <p>1) 모듈별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정하여 역기능적인 사고와 기능적 사고를 할 때 감정과 결과를 토의하여 Worksheet에 기록한다.</p> <p>5. 호흡법과 점진적 근육 이완법, 심상 이완법을 훈련하고 각각의 느낌 나누기</p> <p>참고자료: 동영상&lt;EBS 다큐프라임&gt;, &lt;KBS 비타민&gt;, 복식호흡</p>	
정리 및 평가 (20분)	<p>1. 이번 회기에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소감을 나눈다.</p> <p>2. 과제: 2주 동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때 역기능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로 나누고, 각각의 감정 상태를 기록 해보기, 복식호흡 10회 수행하기</p> <p>3. 다음 회기 예고</p>	

### 3회기 희망나무단계

일 시	2014년 8월 11일 월요일 14:00-16:00	
제 목	술과 의사소통	
주 제	의사소통 기술을 이용하여 음주 거절하기	
목 표	술을 마셔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는 상황들을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그 압력에 대응하는 기술을 연습하며, 절주 또는 금주에 대한 결심과 실천사항을 세운다.	
준비물	마이크, PPT, 노트북, 빔 프로젝터, Worksheet, 전지, 색지, 사인펜, 색연필, 가위, 잡지, 신문지	
단계(시간)	내 용	비 고
도 입 (10분)	1. 모둠 나누기: 3모둠으로 자리 정리 2. 구성원들 간 인사나누기, 3분 복식 호흡 3. 과제 점검: 2주 동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때 역기능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로 나누고, 감정 상태를 기록한 과제 발표하기, 발표자에게 상품 제공	
전 개 (100분)	[교육] 30분 주제: ‘술과 의사소통’ 1. OX 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회기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총 15문제의 퀴즈 출제.</li> <li>- 모둠별로 구성원들끼리 정답을 의논하여 결정한다.</li> <li>- 구호에 맞추어 모둠장이 ‘OX판’ 을 든다.</li> <li>- 진행자가 정답을 알려주고, 모둠별로 점수를 기록한다. 최다 득점한 모둠에게 시상식 때 상품을 제공한다.</li> <li>- 사진을 통해 정답과 관련된 정보를 재확인한다.</li> </ul> 2. 음주 폐해 종합정리 및 Q&A 3. 술 권유가 위험한 이유 4. 의사소통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소통이란?</li> <li>2) 의사 결정, 의사소통, 자기 주장하기 설명</li> <li>3) 또래 압력을 거절하는 방법</li> <li>4)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li> </ol>	정보제공 및 자기효능 감 증진

	<p>할 때 던져볼 질문</p> <p>① 왜 이들은 내가 싫은 것을 하게 하려고 하나?</p> <p>② 내가 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p> <p>③ 나는 이 사람들 말대로 해주면 어떤 이득이 있나?</p> <p>④ 이들이 원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인가?</p> <p>⑤ 이들이 하는 말이 진실인가?</p> <p>[휴식] 10분</p> <p>[소집단 활동] 60분</p> <p>5. 역할극: 또래 압력 거절하기 (20분)</p> <p>1) 모둠별 또래 압력에 대한 경험 나누기</p> <p>2) 역할극을 통해 또래 압력 거절하기</p> <p>: 경험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음주를 거절하는 표현 적용하기</p> <p>6. 음주로 인한 위험을 친구에게 알리기</p> <p>: 모둠별로 음주 예방 홍보 포스터 만들고 전시(30분)</p> <p>7. 희망 나무 만들기 (10분)</p> <p>1) 10년 후 바라는 나의 모습은?</p> <p>2)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할 일은? 결심과 실천 사항 정하기</p> <p>3) 폴리 미니 앞, 뒷면에 적고 꾸미기</p> <p>4) 모둠 구성원들이 한명씩 차례로 10년 후 모습과 지금 해야 할 일, 결심 및 실천사항을 이야기 나눈다.</p>	
정리 및 평가 (20분)	<p>1. 전체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한다.</p> <p>2. 참여 소감을 나눈다.</p> <p>3. 참여도에 따른 시상식을 하고, 모두가 나와 희망 나무의 자신의 결심을 매단다.</p> <p>4. 사후 설문지를 작성한다.</p>	

부록 4-1. <활동지 1> 술에 관한 마인드맵



부록 4-2. <활동지 2> Fatal vision 경험 나누기

활동 2. 알코올 가상 체험

Fatal vision을 착용하고, 바닥의 줄 따라 걷기, 친구에게 걸어가 '하이파이브'하기, 볼펜 전해주기, 자기 이름 쓰기 등을 해 보고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 해 봅시다.





부록 4-3. <활동지 3> 술 광고와 음주

활동 3. 술 광고와 음주

술 광고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청소년들도 술을 한 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모둠별로 TV, 영화, 잡지 등에서 본 술 광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1. 최근에 봤던 기억에 남는 술 광고

2. 광고에 나오는 인물과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1) 출연 인물:

2) 술을 어떤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나요?

3. 술 광고가 타겟으로 하는 소비 대상자는?



#### 부록 4-4. <활동지 4> 감정 다루기

##### 활동 4. 감정 다루기

모둠별로 실제 경험했던 문제 상황을 하나 선택한다.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역기능적 해석과 자신의 평가를 쓰고, 그에 따른 감정을 토의하여 적는다. 같은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평가방식으로 대체하여 쓰고 그에 따른 감정을 적어본다.

◆ 상황:

---

◆ 역기능적 사고:

◆ 감정:

◆ 결과:

---



◆ 합리적 사고:

◆ 감정:

◆ 결과:

부록 4-5. <활동지 5> 음주로 인한 이익과 손해

활동 5. 음주로 인한 이익과 손해

내가 변화하지 않았을 때와 변화했을 때 (술을 계속 마실 때와 술을 끊었을 때) 나의 이익과 손해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술을 계속 마실 때 얻는 것

◆ 술을 끊었을 때 얻는 것



◆ 술을 계속 마실 때 잃는 것

◆ 술을 끊었을 때 잃는 것

부록 4-6. <활동지 6> 바라는 내 모습과 현재 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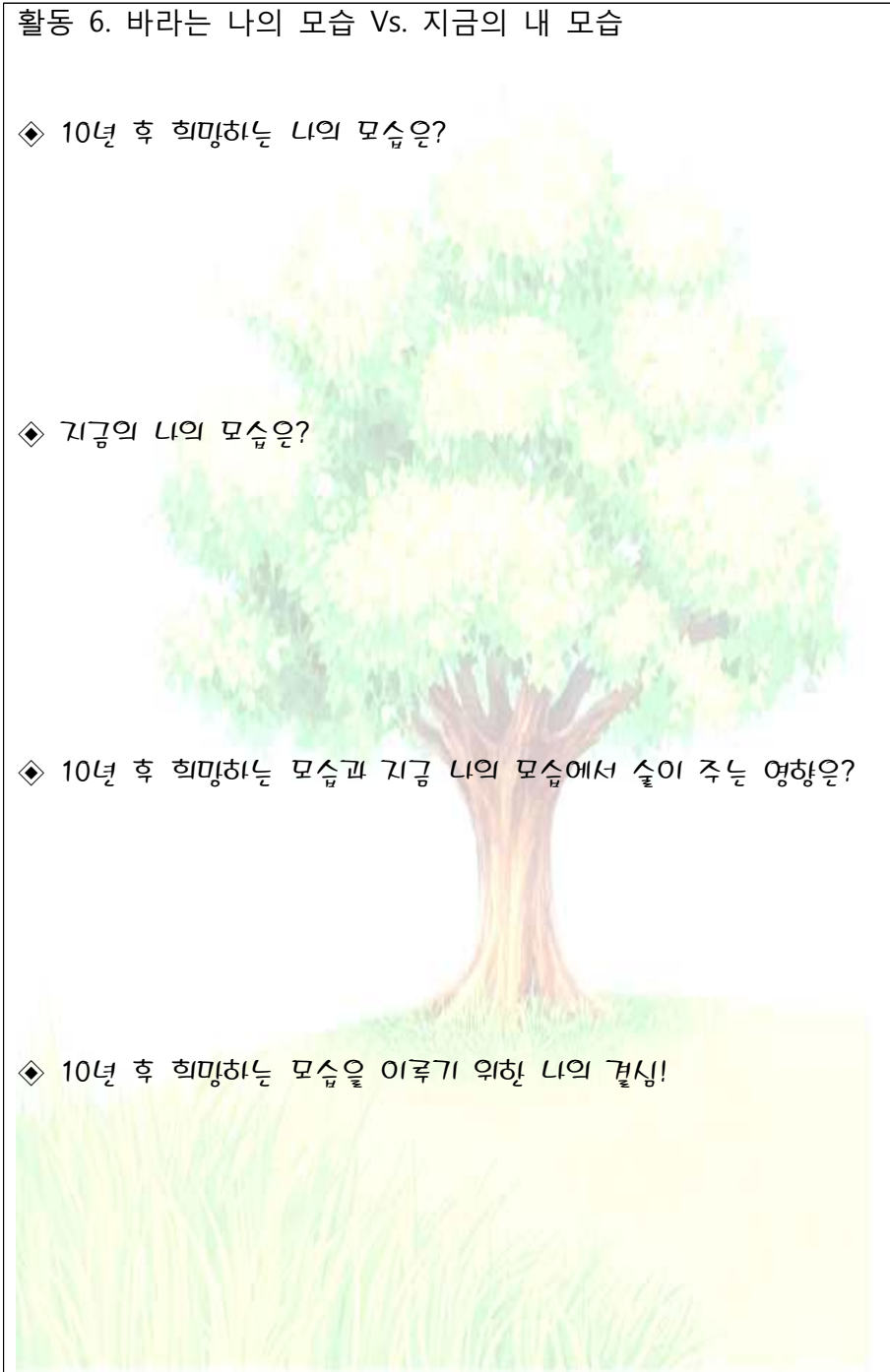
활동 6. 바라는 나의 모습 Vs. 지금의 내 모습

◆ 10년 후 희망하는 나의 모습은?

◆ 지금의 나의 모습은?

◆ 10년 후 희망하는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에서 숲이 주는 영향은?

◆ 10년 후 희망하는 모습을 이룩기 위한 나의 결심!



## 부록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

1.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세)
2. 학교를 몇 학년까지 마쳤습니까? (              )
3.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설문 4번으로)                      ② 없다
4. 맨 처음 술을 마신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세)
5. 주로 누구와 술을 마십니까? (              )  
 ① 친구 ② 선후배 ③ 가족, 친척 ④ 혼자 ⑤ 기타(              )
6. 주로 어디서 술을 마셨습니까? (              )  
 ① 친구나 자신의 집 ② 공원이나 공터 ③ 술집 ④ 기타(              )
7. 센터 입소 전, 1달 기준으로 술을 1잔 이상 마신 날이 얼마나 됩니까?  
 (              일)
8. 센터 입소 전, 1번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보통 몇 잔의 술을 마십니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잔 수를 계산해서 쓰세요.)  
 맥주:(      )잔, 소주:(      )잔, 막걸리:(      )잔, 기타:\_\_\_\_\_(      )잔

소주(포도주) 1병=7잔	맥주 큰병=2.5잔	맥주 중간병=2잔
캔맥주/맥주, 작은병=1잔	막걸리 1병=4.5잔	청하(백세주)병=3.5잔

9. 센터 입소 전, 1달 기준으로 하루에 술을 3잔 이상 마신 날이 얼마나 됩니까? (              일)
10. 이전에 ‘술에 대한 예방교육’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설문 11번으로)                      ② 없다
11. 술에 대한 예방교육’ 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              )  
 ① 학교      ② 가정      ③ 상담기관      ④기타(              )

## 부록 6. 청소년의 음주관련 지식 설문지

다음은 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하여 주십시오.

내 용	○	X	모름
1. 술은 습관성이 있다.			
2. 술을 마시면 술의 분해과정에서 독성물질이 만들어진다.			
3. 음주에 대해서는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없다.			
4. 술을 한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홍조증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5. 음주가 구강암 및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다.			
6. 맥주 1잔, 소주 1잔, 양주 1잔속 알코올의 함유량은 모두 같다. (각각에 해당하는 잔을 기준으로)			
7. 임신 중 임산부의 상습적 음주는 기형아 출산 또는 자연 유산율의 상승을 초래한다.			
8. 알코올은 가장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이다.			
9.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술을 마시면 늦게 취한다.			
10. 겨울철의 알코올 섭취는 체온 손실을 증가시킨다.			
11. 술을 마시고 2-3번 필름이 끊긴 경험이 있다고 해서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12. 과음은 치매와 관계가 있다.			
13. 술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			
14.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기 때문에 술이 깎인다.			
15. 여자는 남자보다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 부록 7.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지식 설문지

각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하여 주십시오.

내 용	O	X	모름
1. 술에는 열량을 제외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다.			
2. 남성과 여성의 알코올 분해 능력은 동일하다.			
3. 알코올 분해 능력은 유전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			
4. 알코올은 임신한 여성의 태반을 통과한다.			
5. 임신 동안 술을 마시면 태아의 중추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준다.			
6. 술을 마시지 않으면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			
7.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금단증상 (예, 손떨림)을 보이는 경우, 알코올 의존이라고 말한다.			
8.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의존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다.			
9. 습관적으로 문제 음주를 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다.			
10. 여성이 임신동안 술을 마셨을 때 출산 한 아기는 출생 1년 이내에 문제들이 나타낸다.			

## 부록 8. 음주 결과기대 설문지

다음은 여러분이 술의 효과에 대한 기대 또는 신념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그렇다	아니다
1.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가 더 쉬워지고 세상이 좋아 보인다.		
2.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3. 술은 모임을 더 재미있게 해준다.		
4. 술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		
5. 술은 사람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해준다.		
6. 술을 마시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7. 술을 마시면 더 로맨틱하게 느낀다.		
8. 술은 성경험을 더 쉽고 즐겁게 해준다.		
9.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10. 술을 마시면 깨뜨리고 부수고 싶은 기분이 든다.		
11. 술을 마시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12. 술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내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13. 술은 싸움에 끼어들게 한다.		
14. 술을 마시고 있으면 자신이 좀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15. 술을 마시면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어진다.		
16. 자신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준다.		
17. 자신의 학교생활(성적, 교우관계, 선생님과 의 갈등)에서 오는 고민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준다.		



## 부록 9.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설문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마시고 싶지 않거나 마실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장 적합한 칸에 V표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 데 내가 안 마시는 것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가 술을 권할 때 거절할 이유를 댈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술을 거절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앞으로 술을 안 마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이 술을 권할 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모임에서 술을 안 마시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부록 10. 금주의도 설문지

다음은 당신의 금주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V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임신을 계획할 때 술을 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Abstract

# The Effects of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s for Out-of-school female Adolescents

**Park, Hyoj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emale adolescents' alcoholic consumption causes serious problems, because of the increasingly lower age and the increasing amount and frequency. In particular, out-of-school female adolescents, who are runaways from home having given up their studies, or who are exposed to delinquency, belong to a high-risk group of problematic alcohol intake. Drinking in adolescence can lead to alcohol addiction in adulthood and has potential to cause the fetal alcohol syndrome caused by drinking during pregnancy. However, since a drinking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is mainly implemented at schools, they have no chance to receive basic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Besides, their drinking is more serious than of those in

schools, so they need differentiated contents and approaches from the general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for adolescents in schools.

Caused by the requirement, this study was made. This i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randomized controlled non-synchronized design, which employed a program to female adolescents residing in a protection and therapy facility, focusing on prevention of possible alcohol-related harms when they are out-of-school, being runaways facing delinquency, and which verified its effects on alcohol-related knowledge, alcohol result expectancy,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intention of abstinence from alcohol. The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is made up of group activities having three sessions, two hours per session, which consists of motivating spontaneous changes and autonomous decision-making through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not only alcohol-related harms to women but also the way to cope with alcohol-related stress and emotions, and role-plays, etc.

46 participa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by a computerized randomization program, and to prevent diffusion effects, the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the data from the control group were collected.

Data collecting period was from June 13 to August 11,

2014, and the data from 23 person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22 of the control group were finally col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18.0. For pre-homogeneity tests, Chi-square test, t-test, and Fisher's exact test were used, and real numbers and percentage were used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Hypotheses were tested by t-test and Mann-Whitney U test, and Kuder-Richardson formula 20 a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ere estimated to test reliability of each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scored significantly higher in alcohol-related knowledge for adolescents than the control group ( $t=-9.93$ ,  $p<.001$ ).
2.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scored significantly higher in knowledge about alcohol consumption in pregnancy than the control group ( $t=-6.06$ ,  $p<.001$ ).
3.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scored significantly lower in alcohol result expectancy than the control group ( $t=2.13$ ,  $p=.040$ ).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cohol refusal self-efficacy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 $Z=-0.79$ ,  $p= .426$ ).

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tention of abstinence from alcohol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ing in the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 $Z=-0.86$ ,  $p= .387$ ).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the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alcohol-related knowledge and in reducing positive alcohol result expectancy for out-of-school female adolescents. However, this program was not effective in changing self-efficacy in their refusal to drink and their intention of abstinence from alcohol. It suggests that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personal ones need to be to lead out-of-school female adolescents to change their drinking behavior. In addition, a personal approach should be made, taking into account the large deviation in drinking behavior and diversity in drinking motivation of the respond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fact that it developed and applied an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considering drinking situations specific to out-of-school female adolescents in high-risk groups of drinking and was a positive, preventive intervention performed in a community apart from schools.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continuous care based on self-help groups or customized

personal intervention in addition to the intervention in this study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alcohol-related harms to out-of-school female adolescents.

**keywords:** Out-of-school female adolescents, Alcohol-related Harm Prevention Program, Alcohol-related knowledge, Alcohol expectancy,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tention of abstinence from alcohol.

***Student Number:*** 2011-20461